



#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38호  
2022년 6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news@snuaa.org

## '내 나이가 어때서~' 80세 넘어 마라톤 풀코스 완주한 권오을 동문



팔십 중반을 훌쩍 넘긴 권오을(상대 56) 동문이 지난 5월 1일 열린 캐나다의 'BMO 밴쿠버' 하프 마라톤에서 1위로 골인, 동호인들을 놀라게 했다. 권 동문은 지난 2016년 이 세상 마라토너들의 로망인 보스턴 마라톤의 80세 이상 부문에서 완주하며 우승(사진)까지해 시니어들에 꿈을 심어줬다. <관련기사=7면>

## '이음 장학생' 15명 남가주 방문 해외여행 경험없는 재학생들 ... '동문 가정 1박'도

서울대 '이음 장학생' 15명이 6월말 남가주를 방문한다.

'이음 장학금'은 서울대와 미국을 잇는다는 의미로 설립된 프로그램. 해외 방문 경험이 없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서울대 재학생들을 지원, 견문을 넓히고 국제적 안목을 갖춘 인재로 성장시킨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박제한)는 이음 장학생들에게 '동문가정 1박 체류'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이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줄 동문도 찾고 있다.

장학생들은 손평아(경영대)·유은교(공예과)·이소희(동양학과)·임유빈(서양학과)·김예린(지구과학교육과)·박용주(교육학과)·민여은(정치외교학과)·

채예원(정치외교학과)·안수혁(지리학과)·박진학(수의예과)·이동건(의예과)·김도연(노어노문학과)·김서경(서어서문학과)·한지우(중어중문학과), 윤지인(인문계열) 등 여학생 11명, 남학생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동창회 측에 따르면 강호석(경영대), 유형규(수의대), 장준(문리대), 서치원(공대), 김희경(사대) 동문 등이 각각 1~4명의 이음 장학생들에게 1박 이상의 숙박을 제공한다. 장윤정(법대) 동문은 멘토를 자원했다.

특히 한귀희(미대) 동문은 본인 소유의 아파트 4 유닛을 방문학생들에 무료 숙소로 제공해, 이들이 LA에 체류하는 동안 불편없이 지낼 수 있게 했다. 서치원 동문은 자신의 별장(레이크 애로헤드)에 학생들을 모두 초청해 바베큐 파티를 열어줄 계획이다.

박제한 남가주총동창회장은 "미국을 처음 찾는 후배들이 이번방문을 평생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동문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박제한(323-229-3369)  
김인종(213-435-1974)

## 제 31차 평의원 회의 개막 오세정 총장 등 참석... 한국서도 관심 높아

제 31차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가 6월 24일 LA 인근의 퍼시픽 팜스 리조트 호텔에서 개막됐다.

올해 행사에는 오세정 총장을 비롯해 김종섭 총동창회장, 이희범 명예회장, 김인규 수석 부회장, 이경형 상임 부회장이 참가하는 등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오 총장은 "동문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간직해가며 문화의 장벽 등 많은 난관을 이겨내고 미국사회에서도 당당한 역할을 하고있다"고 치하하며 "서울대 역시 (미주) 동문들의 피땀어린 노력과 값진 성취를 되새기며 더 넓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찾아 한걸음 한걸음씩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첫날 24일에는 강기동(공대 52) 박사의 반도체, 피아니스트 장지혜(음대 94) 박사의 '음악을 통한 한국 문화의 이해', 임종열(미대 61) 동문의 '그림으로 배우는 한국 문화의 유산' 등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다.

이어 25일에는 평의원 회의와 총장 환영 만찬,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LA 한인타운의 새누리교회에서 유명 밴드 '포르테 디 콰트로'의 서울대 출신 가수 등이 출연하는 음악회가 열렸다.

<관련기사=4~5면>

'반도체의 문익점'  
강기동(공대 52) 박사  
관련기사=2면

###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snuaausa30@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 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 ‘반도체의 문익점’ 강기동(공대 52) 박사 바이든의 ‘삼성 캠퍼스’ 방문에 감회 남달라 “스키 타고 싶어서” 네바다주 리노에 동지 틀어

문득 강기동(공대 52) 박사의 근황이 궁금해졌다. 그도 TV로 뉴스를 지켜봤을까.

지난 5월 20일(한국시간) 방한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평택 캠퍼스)을 찾은 것은 미국이 반도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미국 입장에서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이 나라의 장래가 걸린 핵심과제여서 그럴만도 했으리라.

강 박사는 지난 1970년대 한국에 반도체의 씨앗을 뿌린 장본인이어서 바이든의 평택 캠퍼스 방문에 감회가 남달랐을 터다.

전화를 걸어볼 요량으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런데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흔이가까운 분이어서 혹시 청각장애가 있으면 어쩌나 싶어서다. 그래도 생각난 김에 번호를 꼭꼭 눌렀다.

“헬로~”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화번호가 틀렸나’ 노인이 아닌 것 같았다.

“May I speak to ~” 그러다 그냥 한국말을 썼다. “강 박사님 이신가요?” 곧바로 대답이 돌아왔다. “맞아요. 내가 강기동입니다. 누구세요?” 사람이 그리운 탓일까. 상대방이 아직 누군지 모르는데도 목소리엔 반가움이 가득 실려 있었다.

먼저 보청기의 착용유무부터 여쭙었다. “(귀가) 아직은 쓸만해... 디바이스(보청기) 없어도 잘 들려요. 허허.”

강 박사가 살고 있는 곳은 네바다주 리노다. 6년 전 캘리포니아에서 이사왔다고 했다. 왜? “스키를 타고 싶어서 왔지. 우리집 뒤에 ‘로즈 마운틴’이란 산이 있는데 눈이 아주 좋아요. 요즘은 그러나 안 타. 아니 못타요. 다쳤거든.” 유일한 취미인 스키를 탈 수 없어 펍 아쉬운 듯 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차례. 바이든의 방문에 대한 소회를 물었다. 말이 없었다. 얼마간 침묵이 흐른뒤에야 비로소 입을 뗐다. “TV보다가 껴어요.” 회한이 덕지 덕지 붙어있는 듯한 말투였다.

강 박사는 어떻게 한국에 반도체 기술을 전수했을까. 처음엔 미네소타 대학으로 유학을 왔다. 한 학기를 마치고는 친구가 있는 오하이오주립대학으로 옮겼다. 당시 오하이오는 반도체 특화 대학이었다. 운명

적으로 반도체와 만나게 된 것이다. 들도 보도 못한 반도체에 눈이 번쩍 뜨일 수 밖에. 3년만에 석·박사학위를 끝내고는 동부쪽 기업 두 군데와 애리조나의 모토롤라에 입사 원서를 냈다.

강 박사의 선택지는 모토롤라. 이번에도 역시 운명이 작용했다. 알려지가 심했던 그는 ‘살기 위해’ 애리조나의 사막을 택한 것이다. 피닉스에 동지를 틀자 알려지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당

전 총리 등 유명인사들이 많다.)

당시 모토롤라의 최대 고객은 일본 기업이었다. ‘견학’을 빌미로 매년 수많은 일본 엔지니어들이 찾아와 ‘스파이 행각’을 벌였다. 일본어가 능숙한 강 박사가 안내를 맡았다. 일본인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첨단 반도체 시설을 촬영하기도 했지만 회사 측은 개의치 않았다. 일본과의 반도체 기술격차가 워낙 컸기 때문에 눈감아 줬다고 한다.

힘이었다. 자칫 미국의 첨단기술을 해외로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편법을 썼다. 한국에 조립공장을 세운다는 이유를 댄 것. 강 박사에 따르면 변호사를 무려 16번이나 만나 완벽한 자구 조치를 마련해 줬다.

회사는 칩 설계에서부터 당시로서는 최첨단인 3인치 웨이퍼(동그란 실리콘 기판) 생산라인까지 전 공정을 갖춘 그야말로 제대로 된 대한민국 최초의 반도체 공장이었다. 강 박사를 일컬어 ‘반도체의 문익점’이라고 부르는 배경이다.

그러나 운이 따르지 않았다. 중동 전쟁과 오일쇼크의 여파로 회사가 부도직전에 내몰렸다. 미국인 파트너가 삼성에 자신의 지분을 팔아 넘겼다. 이후 회사는 삼성과 강 박사의 경영체제로 바뀐다.

강 박사는 전자손목시계용 반도체 칩 개발에 성공하는 등 한때 각광을 받기도 했지만 삼성 측과 갈등이 불거져 결국 미국으로 되돌아왔다.

이후 강 박사의 미국생활은 ‘악몽’이나 다름없었다고 한다. “반도체 회사에 취업할 수 없었어요. 신원조회에 통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내가 미국의 첨단 군사 기술을 허가없이 한국에 반출한 사실이 들끓나면 반역혐의로 체포될 게 뻔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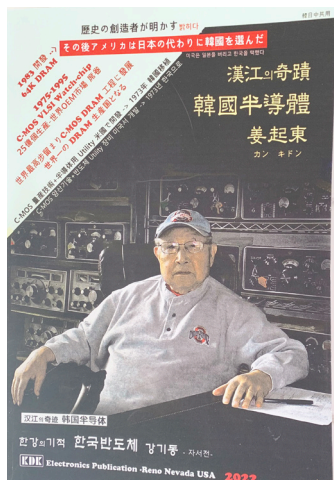
강 박사는 자신의 이름 첫 글자를 따 ‘KDK Electronics’란 회사를 차렸다. 하이텍은커녕 동네 주민들이 고장난 라디오나 TV 수상기를 들고 오면 고쳐주는 전자제품 수리업소에 불과했다. 반도체 박사에게 ‘웃고픈’ 현실이었다. 그마저도 얼마전 폐업신고를 했다.

3년 전 부인과 사별한 강 박사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다시피 한다. “주변에선 먹지 말라고 하지만 그만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 라면이 불량식품은 아닌 것 같다”며 헛헛한 웃음을 터트렸다.

요즘 강 박사는 한글의 세계화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이야말로 반도체 못지 않은 글로벌 발명품이라며 한글의 위대성을 전파하고 있다.

인터뷰 말미에 혼잣말처럼 한마디 했다. “LA에는 고모 딸도 살고 있고... 남종우(공대 60) 후배도 만나보고 싶은데 언제 기회가 올지 몰라.” 외로움이 배어있는 듯해 마음이 무거웠다.

취재=박용필(편집고문)



▲ 네바다주 리노에 있는 강기동 박사의 집은 각종 전자기기로 가득차 있다. 2년 전까지만해도 동네 주민들이 고장난 라디오나 TV수상기들을 들고 오면 수리해주기도 했다.

◀ 강기동 박사가 펴낸 자서전. 자신이 직접 컴퓨터를 이용, 제작한 ‘홈메이드’다. 책에는 반도체와 관련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일화들이 소개돼 있다.

## 알리지 심해 애리조나행, 모토롤라 입사 (주)한국반도체 설립, 오일쇼크로 매각 “한글은 글로벌 발명품, 세계화 힘써야”

시 모토롤라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이어 세계 반도체 서열 2위 기업이었다. 미국 전기전자엔지니어 연구원(IEEE)이 강 박사를 인터뷰해 남긴 기록물(Oral History: Ki Dong Kang)에는 그와 관련한 일화가 비교적 상세하게 실려있다.

기록에 따르면 강 박사는 회사 내에서 천재로 불렸다고 한다. 미국의 극비 군사프로젝트인 ‘미니트맨 II’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된 반도체의 결함을 해결해 방위산업계에도 널리 이름을 알렸다. (강 동문의 경기도·서울대 동기생 가운데는 천재 물리학자 이휘소 박사를 비롯해 이회창 전 대통령 후보, 이흥구

한국과의 인연은 모토롤라에서 짝이 났다. 회사가 반도체 조립공장을 한국에 설립하기로 결정하고는 강 박사를 파견한 것. 도로 항만 등 인프라 시설은 열악했지만 노동력이 우수해 대만을 비롯한 경쟁국들을 제치고 한국이 낙점됐다. 이 때의 경험이 훗날 한국에 반도체 회사를 세우는데 적잖은 도움이 됐다.

모토롤라를 그만 둔 강 박사는 캘리포니아 서니베일에 ICII를 창업한다. 재미한인과학기술협(KEA)에 따르면 한국인 최초의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회사다. ICII를 발판으로 1974년 서울에 (주)한국반도체를 설립한 것이다.

사실 강 박사의 한국 진출은 대단한 모

## “하늘나라에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고)김영일 · (고)김원경 동문 종신이사 가입 미망인의 ‘남편 추모’ … 회비 보내와

세상을 떠난 동문을 기리기 위해 미망인 두 분이 종신이사 가입을 신청해와 감동을 주고 있다. 주인공은 (고)김영일(공대 53) 동문과 (고)김원경(약대 59) 동문.

김영일 동문의 미망인 유재경 여사는 지난달 초 종신이사 회비 3,000 달러를 미주 동창회에 보내왔다.

“남편은 서울대를 나왔다는 것에 자부심이 무척 컸어요. 동창회를 자신의 분신처럼 아꼈습니다.”

김 동문은 지난 1995년 워싱턴주 동창회장을 지내며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애를 많이 썼다.

지난 1978년 유 여사의 약사취업비자로 미국에 이민온 부부는 부동산 관련 사업을 벌여 아메리칸 드림을 일궈냈다.

김 동문은 지난해 10월 지병이 악화돼 결국 세상을 떠났다.

“남편은 늘 동창회 보 오기를 기다렸어요.그만큼 동창회에 애착이 컸기 때문이겠죠. 이제 그 분이 세상을 떠났으니 회보를 보내지 말아주세요. (회보를) 볼 때마다 남편 생각이 눈물이 쏟아져요.” 유 여사의 전화를 받

으며 사별의 진한 아픔을 느꼈다. (고)김원경 동문은 와이오밍대 약대를 졸업, 그동안 Savon과 CVS 등지에서 32년동안 일하고 은퇴했다.

미망인 황춘자 여사에 따르면 신앙심이 돈독한 고인은 LA의 나성한미교회에서 거의 30년동안 안이나 장로로 봉사했다.

황 여사는 “우리는 서로 배려하고, 서로 귀히 여기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며 고인과의 결혼생활을 추억했다.

“남편은 서울대학 얘기만 나오면 철부지 아이처럼 어깨를 으쓱하며 아주 자랑스러워했다”고 회고한 황 여사는 “그래서 남편이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동창회의 종신이사로 만들어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남편은 하늘나라에서나마 자신이 동창회 이사가 된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할거예요.” 황 여사는 미주 동창회에 5,000 달러를 보내와 (고) 김 동문은 실버이사가 됐다.

취재=홍선례(음대 70)



(고)김영일 · 유재경부부



(고)김원경 · 황춘자부부



## 서울대 총동창회장 후원 나눔/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 11월 14~15일 · 라스베가스 컨트리클럽

미주 동창회(회장 노명호 · 공대 61)는 오는 11월 14~15일 라스베가스 컨트리 클럽에서 골프 토너먼트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장학기금 등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기 위한 기금 마련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미주 동창회는 지난 4월 제 1회 서울대 동창회 장학생선발대회를 통해 모두 10명의 대학생들을 선정, 1인당 1만 달러의 스킨십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대회는 동문 또는 동문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주 전체 한인 커뮤니티에 오픈, 잠재력이 많은 인재들을 발굴해 이들의 학업 및 연구 성취도를 높이고 지원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장학생들은 미주 동창회의 소중한 인적자원으로서 앞으로 동창회의 외연확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학금 프로젝트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어서 동문들의 참여와 기부 없이는 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 골프대회는 본국의 김종섭 서울대 총동창회장도 동참의사를 밝히며 특별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미주 동창회의 상임고문도 겸하

고 있는 김 회장은 “본국과 미주의 동창회가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 동반성장을 해야 한다”며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라스베가스 컨트리클럽은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에 인접해 있어 유명인사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지난 1967년 오픈한 골프장은 PGA와 LPGA 등 프로대회도 유치한 바 있어 라스베가스 최고 명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근에 그랜드 캐년 등 관광자원도 풍부해 패키지 여행도 가능합니다.

동문들의 친교도 겸해 열리는 이 대회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 ▲일시: 2022년 11월 14~15일
- ▲신청마감: 2022년 11월 1일
- ▲숙박 및 관광일정: 추후 공지
- ▲장소:

The Las Vegas Country Club  
www.lasvegasc.com  
3000 Joe W Brown Dr.,  
Las Vegas, NV

- ▲문의: 310-719-5422
- 서치원(대회 조직위원장 · 공대 69)

## 우크라이나 성금 마감

미주 동창회의 우크라이나 돕기 캠페인이 지난 5월 31일 마감됐다. 모금된 성금은 총 1만5,649 달러로 집계됐다.

기부금은 국제어린이구호단체인 유니세프(unicef · 유엔아동기금)에 전달될

예정이다. 노명호 동창회장은 “이 성금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 동문초청 ‘할리웃 보울’ 행사 8월 13일 … ‘차이콥스키 스펙태큘러’

동문 초청 할리웃 보울(Hollywood Bowl) 행사가 오는 8월 13일 (토) 열린다. ‘차이콥스키 스펙태큘러(Tchaikovsky Spectacular with Fireworks)’로 명명된 이날 공연은 할리웃 보울 프로그램 가운데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첫 순서는 LA 필하모닉의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연주(자슈아 벨로 시작된다. 이어 차이콥스키의 걸작 ‘1812년 서곡(1812 Overture)’이 화려한 불꽃

놀이와 함께 무대를 달군다. USC의 마칭 밴드도 출연한다.

‘1812년 서곡’은 프랑스의 러시아 침공을 다룬 작품으로 7월 4일독립기념일과 같은 불꽃놀이 행사에는 빠지지 않고 연주되는 관현악곡이다.

남가주총동창회는 이날 공연에 앞서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야외 피크닉 행사를 갖는다. 주최 측은 동문들에게 디너와 음료 등을 제공한다. 공연은 8

시부터다. 개인 지참물은 담뇨와 스웨터, 쌍안경, 커피 또는 병물 등이다.

티켓은 각 단과대학 회장을 통해 주문할 수 있다. 티켓 주문은 7월 31일까지다.

- ▲가격: \$45(입장료 포함)
- ▲장소: 2301 N. Highland Ave.  
Hollywood, CA
- ▲문의: 626-705-3300(염인숙)  
626-616-6524(안혜정)

취재=안혜정(생과대 77)

## “변함없는 지지로 힘이 되어주시기를 ...”



오세정  
서울대 총장

미주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총장 오세정입니다.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노명호 회장님과 미주 각 지부 동창회장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공로패를 수상하시는 신응남, 박종수, 노동완, Edward CM Kang 네 분 동문님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의 '제31차 평의원 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년 이맘때가 생각납니다. 한국이 백신 확보에 곤란을 겪으면서 이른바 백신 선진국들과는 다른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당시 미주동창회 평의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여러 경로로 방안을 타진하였으나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그러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전히 COVID-19과의 싸움은 진행형이지만 이제 그 정점은 지나간 듯 보여집니다.

### 혁신으로 위기 돌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전통적 방식의 대학교육 모델은 점차 소멸해 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1997년 미래학자인 Peter Drucker가 Forbes Magazine 과의 인터뷰에서 “30년 후에는 거대한 대학 캠퍼스들은 유물(遺物)이 될 것이다. 대학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Drucker는 그 이유로 급속히 발전하는 온라인 강의의 들었습니다. 지난 2년간 진행된 비대면 수업과 같은 대학교육의 변화는 10여 년이 지나도 이뤄질 것 같지 않았던 혁신을 불과 2년만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의 위기론은 낮은 주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대학교육은 과거에도 수없이 많은 기술 혁신을 받아들이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인쇄술, 계산기, 컴퓨터, 인터넷 등 혁신적인 발명은 오히려 고등교육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준비가 된 대학들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대는 구성원들의 폭넓은 이해와 자기혁신의 노력으로 시대를 선도하고 한국사회의 성장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씬 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경쟁, 북한과 지역의 안보 위협 등과 같은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함께 한국 사회에는 소득양극화, 세대갈등, 젠더이슈 등 많은 난제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악화되거나 새롭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더 나은 사회적 안전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시의성 높은 방법을 고민하여 해답을 제시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미주 동문들께서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간직해가며 언어의 차이, 문화의 장벽 등 타국에서 겪을 수 있는 많은 난관을 이겨내고 미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시민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 미래 선도 학문 지원

서울대 역시 동문님들의 피땀어린 노력과 값진 성취를 되새기며 더 넓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씩 나아가갈 것입니다.

탈학제적 지식과 탈경계적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본격화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AI연구소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을 신설하였고, 10-10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선도 중점학문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 협력을 강화한 신기술 기반 R&D 연구시설들을 조성하여 장기적 협력연구가 가능하고 연구의 수월성이 확보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향후 5년의 바탕이 되는 새로운 캠퍼스마스터플랜을 확정지었으며, 곧 2040년을 향한 서울대학교 미래발전계획의 수립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한데 모여 2023 QS 세계대학평가에서는 종합 29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사실상 제 임기의 마지막 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정책사업들의 기반을 견고히 하고 우리의 비전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모국과 모교의 안녕과 발전을 향한 동문님들의 변함없는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는 여러분의 격려와 헌신적 성원이 더욱 빛을 발하여 후일 자부심과 긍지로 확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로 모교에 힘이 되어주시고 늘 곁에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주동창회의 저력 놀라워”



김종섭  
서울대총동창회장

존경하는 노명호 미주동창회장님과 동창회 임원 여러분, 미주 각 지부를 대표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평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김종섭입니다.

제31차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평의원 회의에 함께 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평의원 회의 때 이희범 회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했었는데 벌써 1년이 흘러 다시 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희범 명예회장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더욱 반갑고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이번 미주동창회 평의원 회의는 제가 총동창회 회장에 취임하고 처음 맞는 대규모 해외지부 행사입니다. 다행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세가 한풀 꺾여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을 찾아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2년여 동안 근근이 이어졌던 동문들과의 만남이 앞으로 더 활발해질 거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미주 동문 여러분.

미주동창회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서울대 재외동창회입니다. 미주 전역을 아우르는 광대한 네트워크와 활발한 친목 모임은 다른 해외 동창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 보람있고 즐거운 동창회

1991년 출범하여 20여 년이 흐른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성대한 행사를 이어온 미주동창회의 놀라운 저력에 경의와 박수를 보냅니다.

많은 미주 동문들이 서울대와 서울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만, 오늘은 특히 총동창회장 명의로 패를 받으시는 동문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강정수 동문님, 윤성희 동문님, 김윤하 동문님, 이소정 동문님, 김유경 동문님, 박상근 동문님, 차재호 동문님, 최용준 동문님, 윤희경 동문님, 이성숙 동문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노명호 미주동창회장님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 수명은 교류하는 동문 또는 친구의 숫자에 비례한다는 신념으로 40여 년 동안 동창회 모임과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후배들의 귀감이 되셨습니다.

또한 81학번 사무총장, 92학번 재무국장 등 젊은 임원을 대거 등용하여 젊은 동문들이 리드하는 동창회를 만드셨습니다.

‘보람 있고, 유익하고, 즐거운 동창회’를 모토로 44만 서울대 동문이 나라와 사회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함으로써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동창회가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보람 있는’ 동창회로 나아가기 위해 동문들의 나눔 실천과 재능 기부 채널을 체계적, 단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 시니어 타운 건설

본회 산하 사회공헌위원회가 모교 산하 글로벌사회공헌단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자선·기부 음악회를 개최해 우리 사회 그늘진 곳에 서울대인의 온기가 퍼지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캠퍼스 일대에 시니어타운을 조성해 동문들에게 ‘유익한’ 동창회가 되겠습니다. 시니어 전담 병원, 기숙형 영어 특화학교 등을 세워 동문과 동문 자녀들이 즐겨 찾는 힐링 명소이자, 배움의 터전으로 만들겠습니다.

### 온라인 장터 개설

이희범 명예회장께서 잘 닦아 놓은 공부하는 모임을 지속, 발전시켜 지혜를 나누는 유익한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동문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병원, 리조트, 호텔, 음식점 등을 더 확대하고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서울대 온라인 장터를 개설, 동문 기업이나 모교 특화 상품을 쉽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쇼핑 채널, 일명 ‘베리타스 몰’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동문들이 함께 만나고 어울리는 ‘즐거운’ 동창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 바둑, 골프, 국토문화기행, 미술·음악 등 각 분야별 취미클럽을 더욱 확충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동문 간의 친목을 다지는 각종 프로그램을 단과대학별 동창회의 특장을 잘 살려 총동창회와 각 단과대학·대학원 동창회가 더욱 끈끈한 협력관계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문님들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 하길 기원하며 축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동창회 미래에 진지한 토의 기대”



**노명호**  
미주동창회 16대 회장  
공대 61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평의원님들, 고국에서 오신 서울대 오세정 총장님, 김종섭 총동창회장님, 이희범 전임총동창회장님과, 모교 발전기금및 모교동창회 임원님들, 그리고 미주동창회 지부장님들과 동문님들, 미주동창회 제31차 평의원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별히 팬데믹의 여파로 불편한 여행 부담을 감수하며 한국과 타주에서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특별히 환영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31차 평의원 회의는 팬데믹이 종식되고 우리들의 생활이 완전히 정상화 되고난 후에 열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이번 31차 평의원 회의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호텔시설이나 음식 또 회의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칙에 미주동창회는 “Exclusively

for Charitable and Educational Purposes, Community Outreach, and Promotion of Mutual Friendship among Alumni” 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동안 저희 16대에서는 동창회가 할 일들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장학생을 선발하고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한국전 참전용사기념비 건설지원, 재미과학기술인협회 지원 등 지역 사회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동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동창회보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Community Outreach에 관한 사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교 총동창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도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번 31차 회의에서 평의원님들이 미주동창회의 미래를 진지하게 토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모국에서 오는 동문은 급격히 줄어들고 또 미주에 사는 동문수도 해가 갈수록 줄어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젊은 관악동문(80, 90, 00, 10학번)들의 동창회 참여는 아직도 저조합니다.

31차 평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10년 후 미주동창회의 그림을 그려보시고 동창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또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할지 진지하게 토의해주시고 의미있는 회의록을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울대 미주동문님들, 앞으로도 계속 미주동창회를 격려해주시고 후원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모국이나 타주에서 참석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하고 다시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남가주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 “젊은 동문들 참여 함께 고민해야”



**이상강**  
미주동창회 차기회장  
의대 70

안녕하십니까?  
여러 동문님들 이번 31차 평의원 회의

에 바쁘신 중에도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차기회장으로 지명된 의예과 70학번 이상강입니다. 저 먼 오클라호마에서 왔습니다. 동창회의 여러 일들을 현 회장님 및 임원들께 배우고 있습니다.

동창회에 앞으로 더 젊은 동문들의 참여가 기대되는데 현재 한국에서 오시는 동문들이 전에 비해 상당히 적어 앞으로 깊이 고민해 봐야 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 이번 2박 3일의 행사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31차 평의원 회의가 끝나면 골프대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저녁에는 음악회도 계획되어 있으니 많이 참여하시어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문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서울대인의 축제가 됐으면”



**강호석**  
미주동창회 사무총장  
경영 81

학창시절 대학축제가 있었다. 축제란 공동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결속력을 주는 의식을 행하는 행위가 아닌가.

서울대 대학축제는 서울대라는 공동체를 느끼게 해주는 하나의 커다란 의식이

였다. 다같이 모여 떠들고 마시고 토론하고 고민하고 즐기며 한 공간과 한 시간을 같이 느끼던 순간이었다. 대학생이란 신분을 벗어난 지금 더이상 대학축제는 없다.

서울대인의 공감을 느끼는 모임을 멀리 미국에서는 많지 않고 최근 2년정도는 코로나 사태로 더더욱 찾기 힘들었다.

올해 평의원 회의는 미국전역에서 많은 동문님들 그리고 한국에서 총장님과 총동창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오시니 같이 모여 이야기하고 토론하며 즐기는 시간이 될 것이다.

많은 동문들, 특히 젊은 동문들이 많이 와서 교류를 하면 좋을듯하다.

앞으로 평의원 회의가 미주 서울대인이 더 많이 모여 다같이 즐기는 축제로 승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다.



**이희범**  
총동창회 명예회장

## 산업부 장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지난달 임기만료로 총동창회장장에서 물러난 이희범 동문은 이공계 최초로 행정고시(12회)에 수석으로 합격, 공직사회에선 ‘전설’로 통한다. 산업부 장관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한국무역

협회·경총회장, STX 중공업 회장 등을 두루 거쳐 기업계에도 발이 넓다.

특히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아 글로벌 스포츠제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요즘은 경북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아 거의 매일 안동에 있는 재단 사무실에 출근하다시피 한다. 여생을 고향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봉사하겠다는 각오로 안동행을 결심했다고 한다.

## KBS 사장, 경기대 총장



**김인규**  
수석 부회장

KBS 공채 1기로 입사한 김인규 동문은 줄곧 취재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방송기자다.

정치부장을 거쳐 뉴욕, 워싱턴 특파원을 지내는 등 기자로서 밟을 수 있는 엘리트 코스를 거의 모두 거쳤다. 보도국장을 지낸 뒤 19대 KBS 사장에 취임했다.

지난 2011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 회장에 선임되는 영광을 안았다.

지난해까지 경기대학교 총장을 지내 교육행정에도 밝다는 평을 받는다.

## ‘이경형 칼럼’으로 명성



**이경형**  
상임 부회장

이경형 동문은 졸업 후 신문기자 외길을 걸었다. 서울신문 성남주재기자로 첫발을 댄 이 동문은 정치부장, 워싱턴 특파원을 거쳐 기자로서의 최고봉인 편집국장에 올랐다. 이후 논설실장, 주필을 지냈다. 특히 ‘이경형 칼럼’은 정치인들의 ‘필독 칼럼’으로 알려지는 등 명성을 떨쳤다.

특히 경기도 파주의 헤이리 예술인마을 이사장으로 취임해 헤이리가 가진 문화 콘텐츠를 활용, 평생학습교육장으로 재탄생시켰다.

## 화가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미스터 무궁화 위성’ 황보한 박사(공대 56) “과학자적 직관과 예술가적 감성 풍부” 호평

황보한(공대 56) 박사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개척자로 불린다. 한국 최초의 상업용 위성인 무궁화위성 1·2·3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해 이후 ‘미스터 무궁화 위성’이란 별명을 얻었다. 2001년에는 항공우주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폰 브라운 상’을 받았다. 우주개발을 주도했던 미국의 독일계 로켓 과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의 업적을 기념해 제정된 것으로 매 2년마다 시상하는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상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원) 초대 소장인 황보 박사는 12년 동안 위성개발 임무를 마치고 2001년 말 미국으로 돌아와 화가로 변신했다. 한국 체류 중에도 프랑스 파리와 한국예술의 전당 등지에서도 개인전을 열 만큼 재능을 인정받았다.

황보 박사는 지난 4월 8일~5월 16일까지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미미술가협회 회원 작가 초대전에도 참가, 호평을 받았다. 황보 박사를 만나 근황을 취재했다. - 편집자.

### - 한국에서의 생활을 요약해달라.

위성제작회사인 페어차일드에서 근무하던 지난 1989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초대소장으로 초빙됐다. 연봉이 대폭 줄었지만 망설임없이 조국행을 택했다. 가족을 미국에 두고 온 채 어려운 생활이 시작됐다. 아내(박숙자, FDA 독성학 전문가)의 내조가 큰 도움이 됐다.

5년간 밤낮없이 준비 끝에 1995년 첫 번째 작품인 무궁화 위성 1호가 전국민의 비상한 관심 속에 발사됐다. 그러나 발사체 이상으로 정상궤도 진입이 실패하면서 수명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반쪽 성공’이 아니냐는 오명을 감내해야 했다.

이런 따가운 시선속에 정밀한 계산과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결국 무궁화 위성 1호를 목표궤도에 진입시켰고, 2000년에는 무궁화위성 1호를 경사궤도로 운용함으로써 수명을 오히려 2년이상 연장해 ‘반쪽 실패’를 성공으로 돌려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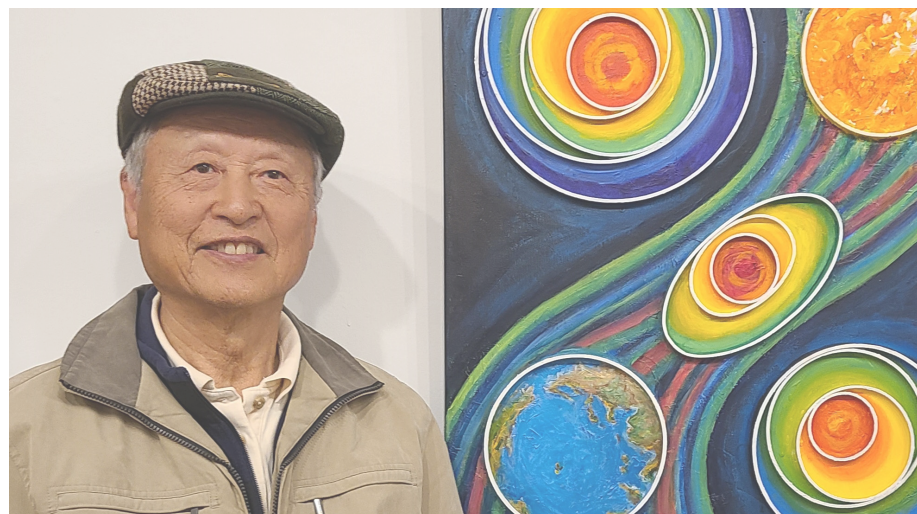
이어 위성 2·3호의 성공적인 발사와 정에서 한국업체들이 위성체의 핵심부품에 관한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 한국의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지금도 뿌듯하게 생각한다.

1999년 3호 위성 발사 후 틈틈이 시간을 내 장편소설(별들의 만남)을 출간했다. 취미로 쌓은 그림 솜씨로 두 차례의 개인전도 열었다. 과학자적 직관과 예술가적 감성이 풍부하다는 평을 듣기도 했다. 한국 근무 12년은 시련도 많았지만 내 인생의 황금기였다고 자부한다.

### - 우주공학자에서 화가로 변신한 계기는 무엇인가?

원래 미술을 좋아했다. 그러나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전국토가 잿더미가 되다 시피해 산업재건이 절실했다. 그래서 화가의 꿈을 접고 공대(화학공)에 진학했다. 1957년 소련이 인류최초로 인공위성(Sputnik)을 지구궤도에 올려 큰 자극을 받았다.

미국에 와서는 NASA의 과학위성 ATS-6호의 열 제어 설계를 담당했다. 그때 우주박물관에서 아폴로 달 탐사선을 처음 봤다. 스미소니안 미술관에서 세계적인 화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은퇴하면 미술을 공부하겠다고 마음 먹었다.



황보한 박사는 최근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미미술가협회 초대전에 참가, 자신의 작품을 선보였다.



황보한 박사의 단골소재는 워싱턴 D.C. 인근의 자연풍물이다.



1995년 발사된 무궁화 위성 1호.

과 C&O 운하와 폭포, 워싱턴의 건축물 등이 단골소재였다.

중기 10년은 한국 근무에 해당되는 시기다. 전국의 명소를 화폭에 담았는데 북한산과 남한산성, 한강, 양평호수, 지리산, 독도, 홍도, 제주도 및 금강산을 그렸다.

후기 10년은 음양이론을 바탕으로 했다. 우주의 비밀을 탐색하는 작품들과 수련 연꽃 등을 소재로 추상화를 그렸다.

### - 그림 작업은 얼마나 자주 하나.

작년까지만 해도 일상생활 외 유희나 아크릴릭 그림을 그렸다. 바깥 날씨가 추운 겨울엔 새를 그리곤 했는데 최근에는 사진과 비디오 클립으로 동영상 작품을 만들고 있다.

### - 존경하는 작가가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내 영원한 롤모델이다. 그는 과학자이자 화가였다. 다빈치는 혁신가들의 영원한 교과서로 칭송받는 인물이다. 스티브 잡스의 심장이 바로 다빈치라고 하지 않는가. 15세기 르네상스 시절을 살았으나 그는 세기를 뛰어넘어 우리가 창의성을 논할 때마다 어김없이 소환되는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천재다.

내가 다빈치를 존경하는 것은 21세기에 그도 여전히 가장 혁신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프랑스의 인상파 그림을 좋아한다. 특히 반 고흐와 모네의 작품들이 나를 사로 잡는다.

### - 앞으로의 계획은.

자연풍물과 세상 변화의 본심을 아름다운 이미지로 승화시켜 새로운 장르의 그림을 시도해 볼 생각이다.

### 황보한 박사는

스튜트가르트 공대 연구조교  
코네티컷대 기계공학 박사  
페어차일드 스페이스  
인하대 초빙교수

취재=한정희(미대 81)

### - 그림을 어떻게 배웠다.

페어차일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일과 후 페어팩스와 몽고메리 지역의 아트 클래스에 등록, 유희를 배웠다. 한국에서 돌아와서는 Penland School of Art에서 본격적인 그림 수업을 받았다.

### - 주로 어떤 장르의 그림을 그리나.

초기·중기·후기로 나눠 설명하겠다. 초기 10년은 워싱턴 D.C. 지역의 자연산천과 4계절의 풍경을 그렸다. 포토맥강



권오을 동문이 지난 5월 1일 열린 캐나다 마라톤 대회에 참가, 딸 재니스와 손녀의 격려를 받으며 달리고 있다. 권 동문은 지난 2016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 80세 이상 부문에서 우승해 유명세를 탔다.

## ‘보스턴 마라톤’ 권오을 박사 “늘 20년 젊게 살아” 최고기록은 3시간55분8초, ‘러너스 하이’ 맛에 뛰어

달릴수록 기분이 상쾌해 진다면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쾌감을 흔히 ‘러너스 하이(runner’s high)’라고 부른다. 미국의 어느 심리학자가 발표한 논문에서 비롯된 용어다. 쉽게 말해 마라톤을 포함한 달리기 애호가들이 느끼는 도취감을 일컫는다.

이 행복감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늘을 나는 느낌과 같다’거나 ‘꽃밭을 걷고 있는 기분’이라고 말한다.

‘러너스 하이’는 언제 느낄 수 있을까. 마라토너 권오을(상대 56) 동문에 따르면 30km 쯤 땀 때 경험한다고 한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 맛에 뛰는지도 모르겠다. ‘러너스 하이’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엔돌핀이다. 의학적으로 이 호르몬은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권 동문은 지난 5월 1일 열린 캐나다 ‘BMO 밴쿠버’ 80세 이상 하프 마라톤(21.1km)에서 1위로 골인, 동호인들을 놀라게 했다. “풀코스를 뛰고 싶었어요. 그런데 팬데믹으로 인해 연습량이 부족해 하프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내년엔 꼭 풀코스에 도전하겠습니다.”

권 동문은 60세 되던 해 마라톤에 입문한 늦깎이다. 호주의 그리피스 국립대학(브리스번)이 글로벌 석좌교수를 공모했는데 이에 응모, 선발되는 영예를 안았다. 외국에서 일하는 아빠의 건강을 걱정한 딸 재니스가 강권하다시피해 장거리 달리기에 도전을 하게 됐다. 처음엔 10km 종목에 참가했다가 하프 마라톤으로 ‘등급’을 올렸다.

이 세상 러너들의 최고 로망은 보스턴 마라톤 대회 참가다. 권 동문은 68세 되던 해인 2004년 기회를 잡았다. 보스턴 마라톤은 신청한다고 아무나 뛸 수 있는 대회가 아니다. 대회 개최 1년 전 기록을 주최측에 제출, 기준에 맞아야 출전자격이 부여된다. 그것도 보스턴 측이 인정하는 대회에서 공인받은 기록이어야 한다. 당시 보스턴 마라톤은 4시간 15분이 커

트라인이었는데 권 동문의 기록은 4시간 8분이어서 참가할 수 있었다. 첫 출전이어서 입상은 못했지만 참가 자격이 주어졌던 것 만해도 개인적으로는 대단한 영예였다.

지금까지 권 동문의 최고 기록은 70세 되던 해 작성한 3시간 55분 08초.

권 동문은 2016년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한다. 바로 보스턴 마라톤 제패다. 80세 이상 부문에 출전한 권 동문은 42.2km의 풀코스를 4시간 31분만에 완주,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것. ‘마라톤의 성지’ 보스턴에서 일궈낸 쾌거였다.

그의 체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권 동문은 50대 중반 대학 당국이 실시한 체력검사에서 A급 판정을 받았다.



마라톤 풀코스를 뛰고 있는 권오을 동문.

### 7080 동문에도 강추, “늦은 나이는 없어” 대동강변, 베이징 천안문 광장서도 달려 건강하게 100세 시대 살려면 운동해야

캐나다 30대의 평균체력이라는 것이다. 이후 자신의 나이보다 20년 젊게 살기로 결심하고선 목표 달성을 위해 운동에 전념했다.

어쩌면 보스턴 마라톤 우승은 그의 ‘20년 젊게’라는 목적있는 삶이 일궈낸 결

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 싶다. 이는 의학적으로도 입증된다. 언젠가 마이오 클리닉은 “나이가 들어도 왕성하게 운동하고 좋은 기록을 내는 사람들은 청소년기의 활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권 동문의 아침 루틴은 스트레칭으로 시작된다. 이어 윗몸일으키기(sit-up)와 팔굽혀펴기(push-up)를 하루 각각 50번씩 해왔는데 3년 전 오십견이 와 요즘은 윗몸일으키기만 하고 있다. 물은 조금씩 3컵을 마신다(한꺼번에 마시면 큰일 난다).

50년 이상 이 같은 운동을 계속해와 아직 허리에 이상이 없다. 5시간 계속 뛸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원래 달리게끔 설계돼 있다는 말일 터. 권 동문은 “마라톤은 운동화와 간편한 옷만 있으면 혼자서도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운동”이라며 “땀 흘림으로 노폐물을 배출하고 온갖 걱정도 날려 보내니 건강은 기본이고 자신감은 덤으로 주어져 좋다”고 마라톤 예찬론을 펼친다.

권 동문은 한국을 포함해 해외 대학 출강이 잦은 편이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뛴다. 한국은 주말마다 주요 도시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려 거의 매주 풀코스를 달렸다.

중국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도 뛰었고 심지어 북한인 대동강변, 원산 송정리 소나무 숲에서도 5차례나 달렸다. 하마 트면 북한 공안에 체포될 뻔 한 적도 있었다며 놀란 가슴을 쓰러내렸다.

“무리만 하지 않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어요. 완주했을 때의 그 성취감과 희열은 뛰어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며 70~80대 시니어들에게도 마라톤을 강추했다.

“건강해야 100세 시대를 누릴 수 있어요. 골골하면서 오래 살면 뭐합니까. 운동이야말로 100세 시대를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건강이 행복의 세 요소 중 하나’라는 리처드 이스털린 교수의 ‘행복 경제학(happiness economics)’을 인용했다.

달리면 몸이 좋아지고 엔돌핀도 팍팍 솟는다.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눈도 좋아지기 마련이다. 80대가 50대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할까. “이 보다 더 좋은 힐링이 어디 있나요.”

#### 권오을 교수는

캐나다 맥마스터(McMaster) 대학 경제학 박사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 교수

호주 그리피스 국립대 교수 및 한국학 연구소장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 겸임교수

럼 몸을 풀어주고 근육을 잡아주는 ‘관리’ 덕분에 부상을 입지 않고 달릴 수 있게 됐다.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사람은 달린다.’ 마라토너들 사이에 회자되는 명언이다. 인간의 생체공학적 구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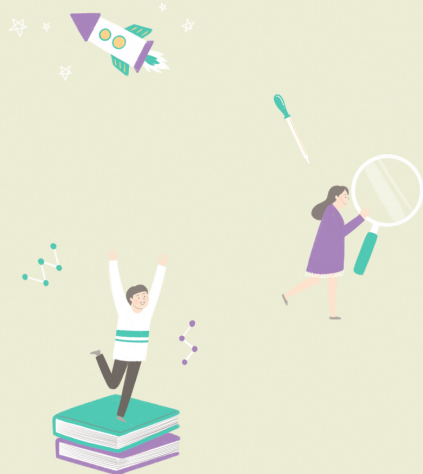


새로운 도약 당신과 함께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만만한 기부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선한 인재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만만한 기부 수혜학생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 꿈을 향해 달려갈수 있었습니다

선한 인재 장학금을 바탕으로 꿈을 펼치고 학업을 이어가라는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달은 후로는 여기에 달린 책임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제게 지원해주시는 것인 만큼, 저 역시도 이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장학금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라는 제꿈을 향해 더욱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 누군가의 응원을 받는다는 것

입학했을때 부터 쪽 선한 인재 장학금을 통해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런 경제적 지원도 없는 상황속에서, 만약 이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지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있어 경제적 부담 하나를 더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서울대 선한 인재 장학생  
감사편지에서 발췌(2021.)



“나의 만만한 기부,  
어떻게 쓰일까요?”



STEP 1

#### 후원참여

모든 후원자는 SNU Family로서 기부영수증, 감사카드 그리고 소정의 기념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TEP 2

#### 선한 인재 장학금 조성

매년 약 30억원의 기금 조성이 필요하며 소중한 기부금에 학교예산이 더해 집니다.

STEP 3

#### 장학복지과 전달

후원금 전액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생활비 장학금인 선한 인재 장학금으로 조성되며 장학복지과로 전달됩니다.

STEP 4

#### 매 월, 선한 인재 장학금 지급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 800명에게 매월 선한 인재 장학금 30만원을, 연간 360만원을 지급합니다.

STEP 5

#### 열공!

선한 인재 장학금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경제적 고충을 덜어내고 학업에 충실하며 저마다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STEP 6

#### FINISH!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 후 휴대폰으로 찍어 america@snu.ac.kr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담당자가 참여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만만한 기부 간단 참여신청서

[MMH22-01]

성명:	연락처:
학과(특별과정):	입학연도(기수):
약정금액: 일금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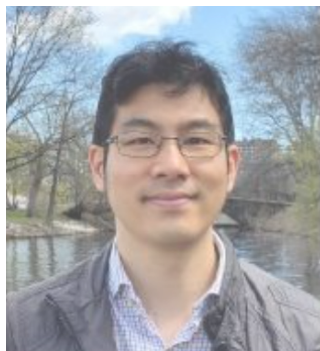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NJ | 222 Bridge Plaza South Suite 720, Fort Lee, NJ 07024  
Tel +1-212-768-9144 Fax +1-212-768-4494 E-mail kenneth@klgroup.cpa  
LA | 2410 W. James M.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1-213-435-1974 E-mail america@snu.ac.kr  
SEOUL | SNU Research Park Main Building,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Tel +82-2-871-8004 Fax +82-2-872-4149 E-mail snuf@snu.ac.kr



# 보드게임 한판 어때요? 손주하고도 금방 친해져 ... '신세계' 경험 집중력 높여주고 적극적인 사고 길러줘



정해원  
자연대 02

커다란 보드를 펼쳐놓고 기차길을 연결하는 이 게임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유럽, 뉴욕 등의 여러 맵이 출시되어 있어서 자녀들에게 도시 이름도 가르쳐주면서 게임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면 상대방이 들고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되고 상대방이 필요한 카드를 내가 들고 있으면 속으로 음흉한 미소를 짓게 됩니다. 수학박사가 만든 게임답게 내가 게임에서 승리했는지를 '증명'해야 된다는

### Splendor

보드게임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만 추천해 달라고 하면 무조건 이 게임을 강추합니다.

보석을 모아 카드를 사서 점수를 받는 단순한 룰이지만 목직의 감촉의 보석 토큰을 사 모으면 모을수록 점점 더 카드 사기가 쉬워지는 시스템 덕분에 어느 누구와 해도 즐길 수 있습니다.

###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할 만한 게임

#### The Mind

모두가 합심해서 목표를 달성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무슨 카드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눈빛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상대방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서로 피식피식 웃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될까 싶었지만 아슬아슬하게 목표를 달성하고는 저절로 하이 파이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Dixit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카드가 눈길을 끄는 게임입니다.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야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났어도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며,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카드를 표현해서 종종 빵 터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게임은 중독이나 할 일 없는 사람들의 시간 때우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상상력 자극

하지만 최근에 개발된 많은 보드게임들은 여러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며,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집중력을 높여주고, 수동적인 디지털 게임과 다른 적극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잠시 놓아두고 즐거운 보드게임 한판 어떠신가요?

#### 정해원 박사는

텍사스 주립대학(오스틴) 박사

Sano3 포스트닥

Asimov Mammalian(synthetic biologist)



보드게임은 집중력을 높이고 상상력을 자극해 시니어들에게도 널리 권장되고 있다. 특히 손주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어 세대간의 골을 메워주는 순기능의 역할도 해준다.

시스템으로 인해 마지막에 두뇌를 풀가동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 손주들과 할 수 있는 게임

#### Rummikub

아흔이 넘으신 저희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고 심지어 저보다 잘하시는 게임입니다. 같이 계신 어르신 분들과도 종종 함께 이 게임을 하신다고 하네요. 단순하게 숫자 타일들을 연달아 붙이는 게임이지만 하면 할수록 타일을 재배치하는 요령이 생겨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타일을 내려놓을 수도 있게 됩니다.

### 연인과 둘이서 할 수 있는 게임

#### Lost Cities

손에 든 카드를 남 주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플레이 하자니 나한테는 별로 이득이 없고, 그야말로 매순간 계륜이 떠오르는 '밀당' 게임입니다.

좋은 카드가 나올 때까지 참고 또 참아 보지만 못 참고 플레이한 이후 과거의 나를 원망하게도 되죠.

#### Schotten Totten

내가 필요한 카드가 댁에 있을지, 아니

가족들과 오랜만에 모였는데 각자 핸드폰만 보고 있나요? 연인과 매주 데이트할 때 무얼해야 할지 고민중이신가요? 자녀들과 같이 할만한 놀이를 찾고 계신가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여럿인데 어색함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해결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보스턴에서 한인 보드게임 모임 '보드톤(Boardton)'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보드게임 카페 못지 않은 보드게임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년여 기간동안 100회가 넘는 모임을 운영해 오면서 한인들에게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즐거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게임을 소개해드린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에 꼭 맞는 보드게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드게임하면 화투, 블루마블(Blue Marble), 젠가(Jenga)만 알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임

#### Illusion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색깔만 구분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만 게임 제목처럼 눈을 어지럽히는 그림들을 보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혼돈에 빠지면서 카드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고민하게 됩니다.

정답이 공개되면 종종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에 다들 어리둥절하고 폭소를 터트리게 되죠.

#### Ticket to Ride

가벼운 카드 게임에 흥미가 없으시다면

## 미주 동창회 웹사이트 확 바뀌었습니다

snuaa.org

미주 동창회 웹사이트(www.snuaa.org)를 새로 단장했습니다. 정보 접근성과 사용자 편의성 등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했고 동시에 디자인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브레이킹 뉴스'를 비롯해 각종 공지사항이 소개됩니다. 동창회보의 1면 기사가 사진과 함께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미주 동창회가 주관·진행하는 주요 사업과 매달 열리는 포럼 등이 소개돼 홈페이지지만 봐도 동창회의 활동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뉴스를 보강한 것이 눈에 띄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발행된 동창회보를 연도와 월별로 읽을 수 있도록 pdf 파일을 첨부해 냈습니다. '종이'보다는 '디지털'에 더 익숙한 세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확 바뀐 snuaa.org에 동문들의 많은 관심과 접속을 바랍니다.

## 수학과 경제학, 그리고 동양과 서양 자유민주주의 후퇴 우려 목소리 높아져



**윤용준**  
상대 63  
조지 메이슨대 교수

다음은 필자가 아메리칸 대학(American University)에서 발표한 콜로퀴엄(Colloquium)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다. 서양 문명의 토대가 되어 온 과학과 정치 제도에 비추어 동양과 그리고 한국의 문제점을 다뤘다.

옛 그리스인들이 발전시킨 기하학(Euclidean Geometry)의 방법론은 서양 문명의 토대가 되었다. 이것은 수학적 진리(Theorem)는 증명을 요구하고, 여기에 공리적 방법(Axiomatic Method)을 사용했다. 이러한 논리적 정신은 서양의 자연과학 뿐 아니라 경제학과 법학에서도 볼 수 있다.

필자가 만난 하버드 법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 입학생 중에서 학부에서 철학과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법대 공부를 가장 성공적으로 마친다고 한다.

논리적 증명과 이를 가능케한 공리적

방법론은 서양의 과학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정치 이념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Trust but Verify"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한편 동양은 사회적으로 국가의 형성에서 중국이 서양보다 빨랐다. 국가 사회를 이루는 기본 철학은 유교의 고전 '중용'에 나온다. 우주의 본질이 '성(誠 sincerity)'이라고 표현하였다. 인간을 하나의 소우주(Microcosm)로 인식하고, 인간의 본성에 '성(誠 sincerity)과 '명(明 enlightenment)'이 있다고 믿었다.

중용에서는 '명'을 발전시켜 (교육을 통하여) '성'을 성취하는 것이 인간의 길이라고 보았다. 현대인이 받아 들이기 힘든 형이상학적 우주관이라 하겠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통찰력이 느껴진다. 일찌기 박종홍 철학교수께서 "책은 중용이 최고야"라 하신 것을 읽은 기억이 난다. 내가 중용을 접한 것은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서 노영찬 교수가 강사로 수고하시는 '동양고전연구회'에서다.

동양에서는 이러한 절대적인 지식은 도달하기 어렵고 오랜 시간의 노력으로만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래서 권위(authority)가 중요한 순기능을 하였다. 동

시에 과학적 지적 발전에는 한계를 가져왔다. 새로운 idea의 발상 - 자연 과학과 사회 정치 사상의 발전이 침체되었다. 권위자의 이론을 검증하는 방법과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양의 침체가 조선 사회의 몰락을 가져와 결국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겪게 된다. 일본, 한국, 중국은 서양문물을 접하고나서야 비로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국가들이 계속 발전하려면 무엇

와서는 경제학을 대변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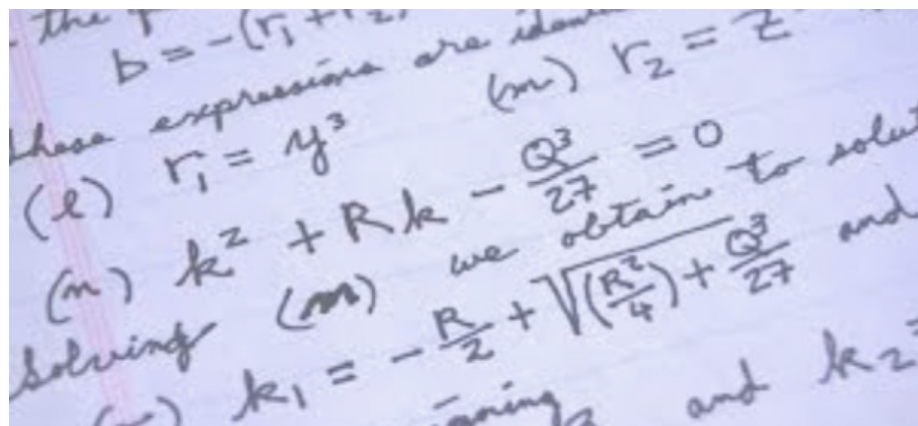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수학의 공리적 방법론과 증명을 경제이론에 적용한 것이다. 한편 경제이론에 과학적 체계를 갖추는 공로는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비판을 하는 학자들이 있다. Hayek, Buchanan, Frank Knight 같은 분들이다.

근본적으로 수학은 연역적(deductive)인 학문이나 경제학은 경험적 학문이다. 모든 경제 문제는 효율성과 개인의 자유의 문제를 포함한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경제의 효율성 문제를 다루었다면, 애덤 스미스는 자유의 문제에 중점을 두었다. 뷰캐넌은 애덤 스미스와 같은 관점이다.

현재 미국과 서유럽에서 자유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책과 개인의 자유야말로 정치경제학(경제학의 다른 이름, political economy)이 해결 해야할 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적 철학 이념에 근거한 법질서(rule of law)를 확립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권력자에게도 똑같은 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한국 정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검수완박'은 우리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시험하는 관문이라 할 수 있다.



보다도 검증과 증명의 방법론이 사회 제도와 문화에 정착되어야 가능하다.

서두에서 언급한 metamathematics로 돌아와서 meta-economics를 언급하려 한다. 서구사회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경제의 발전을 가져왔다. 애덤 스미스는 뉴턴의 물리학에 버금가는 경제학을 창시하였다. 이어서 경제학은 수학의 calculus 개념을 도입,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된다. 신고전주의 경제학(Neoclassical Economics)이 형성되어 20세기 중반에

오늘까지 일구어온 모든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일엔 더 가슴 뛰는 이야기가 꽃피울 수 있도록,  
귀하의 가문만을 위한 서비스를 디자인합니다.

**이태영(법대 60)**  
Multi-generational Wealth Management  
영속적 가문 자산관리

**Manage Your Family Like a Business**  
웰씨앤와이즈 패밀리오피스

**Next Generation Education**  
다음세대 교육

**Wealthy & Wise**  
Baltimore | Honolulu | Seoul  
410.469.9532 | 345 N. Charles St, Baltimore, Maryland  
808.427.8434 | 1003 Bishop St, Suite 2700, Honolulu, Hawaii  
www.wnwinc.co.kr | info@wnwinc.co.kr  
이태영 (법학과 60) 웰씨앤와이즈 설립자, 상임고문  
박상우 (경영전문대학원 06) 웰씨앤와이즈 한국법인 대표이사

**Investment Strategy**  
투자전략

**Concierge**  
컨시어지

**Philanthropy**  
필란트로피

## 서울대 산악반의 산증인 김동근 동문의 80회 생신 기념 등반기

매월 첫 토요일에 있는 남가주 서울대 산악반의 이번 6월 정기 등반은 김동근(공대 60) 대장의 80회 생신 기념으로 열렸다.

파사디나 서북 쪽 에인절스 내셔널 포레스트에 위치한 밀라드 폴(Millard Fall)을 출발해 밀라드 캐년 트레일을 따라 에코 마운틴(Echo Mountain)으로 향하는 왕복 6시간의 가파른 산길이었다.

아찔한 산 절벽을 따라 바위를 뚫고 만들어 진 좁은 자갈길을 따라 가는 등산길에는 이렇듯 몰랐던 많은 종류의 야생화가 피어 있어 대원들의 발걸음을 멈추게도 하였고 바위틈에 깊이 뿌리 박고 있어 우거진 수목들은 절경을 이루며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

산허리에 걸쳐진 하얀 구름위로 솟아 오른 산 봉우리들은 미소를 지으며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걸으면 곧 정상에 도달한다고 격려를 하는 것 같았다.

힘 겹겹이 정상에 도달하니 사방에 시야가 탁 트이고 주위의 절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에코 마운틴이 가까운 앞에 있었고 또 오른쪽으로는 달에 최초로 인간을 보냈던 아폴로 프로젝트 등 세계 우주탐험의 산실인 제트추진연구소(JPL)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다.

동북쪽 산 너머에는 월슨 마운틴 천문대가 가까이 있었다. 허블 박사가 이곳에서 은하 관측 결과 우주 패장의 원리

를 얻어 내어 현대 우주론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고 나중에는 아인슈타인 박사도 초빙해 대담했다는 그 유명한 천문대다.

이처럼 세계적인 고 역사적인 시설들이 절경의 등산길 가까이에 산재하고 있고 또 접근하기 쉬우니 남가주 동문들의 행운이라고 여겨진다.

산에는 한국의 개나리를 꼭 닮은 '스페인시 브room(Spanish Broom)'이라는 야생화가 넉쿨지어 향기를 내뿜으며 만발해 있었다.

산행에 참가한 대원들은 김동근 대장이 사전 예약해둔 고급 부페 식당에서 팔순 축하만찬을 가졌다.

여기서 김동근 동문의 면모를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김 동문은 45년 전 서울대 등산반을 창립한 분이다. (처음 15년동안은 서울공대 등산반이었다가 이

후 서울대 등산반으로 확대됐음). 김 동문은 등산반 창립이후 줄곧 모든 등산 계획과 연락, 사전 답사를 비롯해 안전 관리와 가이드 등 등산에 관한 모든 일을 홀로 불평하지 않고 해왔다.



실로 고개가 숙여지는 놀라운 일인 것이다. 부인이신 김군숙 여사의 이해와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김 동문은 소년 시절부터 산을 유별나게 좋아했다고 한다. 경기중학 다닐 때부터 산악반에 들어가 그때 벌써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등 전국의 명산을 거의 모두

등반했다.

미국에 유학와서도 산에 대한 애착은 그대로 이어져 네바다 시에라 산맥, 샌게이브리얼 산맥, 에인절스 내셔널 포레스트 등에 속해 있는 수백개의 트레일을 여러 차례 등반했다.

20년 전에는 회갑 기념으로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위치한 3000 피트 수직 암벽 '엘 카피탄(EI Capitan)'을 로프에 매달린 채 이틀밤을 꼬박 세운 끝에 정복, 한인 알피스트 역사를 새로 썼다.

전기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로 지금도 방위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문학에도 조예가 깊다. 특히 이백, 도연명, 두보 등 당나라 한시를 꿰뚫고 있어 Acro 문화산책의 한문학 특별강사로 종종 초빙되기도 한다.

김 동문과 가까이 지낸 대원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생각이 있다. "그 분은 서두르거나 불안해 하거나 또는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김 동문은 군자, 젠틀맨이다. 아마도 이같은 성품을 갖게 된 것은 소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80에 이르기까지 유달리 산을 사랑하고, 산에서 배운 성품 덕분이 아닌가 한다. 어느 옛 시인이 읊었다고 하는 시처럼 말이다.

청산은 말 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티 없이 살라하네  
바람처럼 살다가라 하네.

김동근 대장의 80회 생신을 축하하며 더욱 건강하고 기쁨으로 충만된 복된 여생 되기를 산악반 대원 모두와 함께 기원드린다.

취재=정동구(공대 57)



# 미주동창회 발전을 빕니다.

민일기 약대 69, 전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





## 발행인에게

### 거북선 퍼레이드 기부금에 고마움

거북선 퍼레이드를 응원해 주시기 위해 기부금을 보내주신 미주 동창회 노명호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편집실에서도 총무공의 위대성을 널리 전파해 줘 감사를 드립니다.

좀더 일찍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갑자기 수술을 받느라 늦었습니다.

곧 거북선 모형제작에도 착수해 이순신을 미국사회에 홍보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내원(사대 58 · 워싱턴 D.C.)

### “즐거운 마음으로 동창회비 보냅니다”

동창회비가 읽을거리도 다양하고 내용도 알차게 꾸며져 오히려 75달러 회비가 너무 작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

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김자경(생활대 60 · 리버사이드)

### “구창화 동문의 봉사에 깊은 감동”

지난호에 실린 구창화 동문의 스토리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동문들은 대부분 이기주의적이어서 봉사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구동문님이 이같은 편견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30년째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가이드로 무보수 봉사하고 계시다니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마리아 박(문리대 68 · 남가주)

### “재밌는 스토리가 많아 흐뭇해요”

동창회비가 새롭고, 재밌는 스토리가 풍부해서 흐뭇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툼 변(사대 59 · LA)

## 화제의 동문

### 이만택 서울대 발전기금 미주재단 이사장 봉사와 헌신의 모델 ... 1,600만 달러 모금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미주재단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필라델피아 동문 이만택(의대 52) 이사장이 미주동창회에 5천달러를 후원하며 실버이사로 등록했다.

이만택 이사장은 뉴저지에서 캐피탈 헬스 시스템 마취과 과장으로 20여년간 재직했고, 머서 메디칼 센터 마취과 과장, 뉴욕의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수술 부실장으로도 오래 근무한 의료인이다.

서울대 의대 미주동창회장으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내 한인 의사 커뮤니티를 위한 봉사에도 헌신해서 한인의사협회(KAMA) 회장, KAMA 회보 창간 및 발간 등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서울대학교의 공식 모금기관인 발전기금 미주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은 이후 지난 10년간 미주에서 1,600만 달러를 모금해 모교로 보냈다.

이 동문은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무보수로 일하며, 출장 항공비, 숙박비는 물론 업무 식사비 등의 경비도 모두 본인이 부담하는 등 청렴한 봉사로도 잘 알려져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본인의 어머니 이름으로 장학기금을 설립해 후학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학교측은 발전기금

미주재단을 통한 동문들의 헌신적인 기부참여와 이만택 이사장의 수고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동문은 필라델피아 예술 박물관에 한국관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한 ‘코리아 헤리티지의 창립멤버로서 자신이 소장한 고려자기, 병풍, 조선시대 의류품 등 10여점을 이 박물관에 기증하기도 했다.

필라델피아의 서재필 재단에서도 오랫동안 봉사하며 1999년 ‘헬렌 리’ 장학 프로그램을 시작해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이 장학 사업에는 많은 지역 후원자들이 동참해 작년까지 227명의 한인 2세, 타민족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다.

서재필 기념관 설립에도 헌신하며 미주 동포로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서재필박사를 한인 2세와 미주사회에 널리 알려 왔다.

이와 같은 그의 봉사활동으로 서울대학교로부터 2018년 동문 봉사상, 2012년 KAMA의 최고대상인 ‘최재창’ 상, 1998년 서울대 의대 동문상, 2007년 의대 미주 동문상 등을 수상했다.

이 동문은 아프리카 의료봉사에도 적극 헌신하며 우간다의 모요 허스피탈(Moyo Hospital)에서 3년간 의술을 베풀고 봉사와 헌신의 삶도 실천했다.



이만택 의대 52

## 삶의 향기

### 재물과 재능은 기부해야 빛나 동창회 참여 동문들에 큰 박수



심화섭 약대 61

내 큰아들은 장애를 갖고 있다. 그것도 하반신 마비다. 아들을 고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현대의학으로는 어렵게 되자 교회를 찾았다.

미국 한국 할 것없이 유명하다는 목사님과 부흥사님들은 거의 모두 쫓아다녔다. 아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면 무엇이든 못하라.

서울대라는 오만하고 콧대높은 자존심으로 신앙을 등지고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다. 의대 동문이신 형님도 아이로 인해 내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며 약대 진학을 적극 권유했다.

뒤늦게 오클라호마 대학에 들어가 약학 공부를 처음부터 시작해 학위를 땀다. 약사면허를 취득하고는 제약회사와 병원, CVS 체인 등을 거쳐 지난 25년 동안 약국 개업을 했다.

큰아들은 장애를 극복하고 UC버클리나 USC의대를 나와 의사가 됐다. 둘째(MIT)와 딸(컬럼비아), 넷째(하버드)도 모두 의료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제 내 나이 겨우 80이 됐다. 후배님들한테는 조금 앞섰지만 선배님들 앞에선 여전히 아이같은 존재다.

80이란 숫자는 오투기와 같아 거꾸로 놓아도 변하지 않는 ‘매직 넘버’다. 공자께서

는 인생 40을 불혹이라 했지만 나는 이제서야 불혹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나이가 되다보니 비로소 세상을 보는 눈이



뜨이게 됐다.

서울대 동문들은 한사람 한사람 모두 국가가 뽑아준 가장 똑똑하고 재능있는

분들이다. 한번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다.

동문들 모두 부모가 물려준 재능, 국가가 선별해 키워준 탤런트를 내가 아닌 이웃과 공유하며 아름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재물은 언젠가 내게서 떠나겠지만 재능만큼은 내가 선택해 나눠주지 않으면 폐기처분되는 것이다.

훗날 하나님이 ‘내가 준 재능으로 무엇을 하다 왔느냐’고 물으시면 무슨 대답을 해야할지 요즘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동창회에 참여하는 것도 알고보면 재능 나누기나 다름없다. 나도 동창회에 관여한 적도 있었지만 여간 힘든게 아니었다.

동창회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께 후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 약학박사의 당뇨 분석 노년기의 적 ... 60대 이상 4명 중 1명 꼴 발생



송석주  
화학과 66

으로도 불리는 질환으로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다. 반면 제 2형은 고열량, 고지방, 고단백의 식단,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당뇨는 글자 그대로 소변에 당이 있다는 뜻이다. 영어의 'diabetes mellitus' 도 소변과 꿀(당)이란 뜻이다. 흔히 'di-

중장기적인 혈당량의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화혈색소 측정(A1C Test)을 해야 한다.

혈당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는데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심한 갈증을 느끼고, 소변양이 늘어나며, 몸이 허

지고 작은 상처나 붓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상처들은 발에 괴사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피가 걸쭉해지면 발끝까지 산소나 영양분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면역세포의 접근도 어려워 상처가 나아지기 어렵다. 심하면 발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다.

### 포도당은 인체의 에너지 소스 인슐린 부족하면 혈당 조절못해 음식은 천천히 조금씩 섭취해야



“안녕, 난 소니아야. 내가 지금 뭘하고 있느냐고? 나는 하루에 몇 번씩 바늘로 손가락을 찌러서 피 속에 포도당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봐야 해. 그리고 인슐린이라는 약이 들어있는 주사를 혼자서 놓지. 당뇨병 때문이야. 보통 사람들은 몸속에서 인슐린을 스스로 만들지만 당뇨병을 앓는 사람들은 그러질 못하거든.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아프고 무서울 때도 있어.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 힘껏 용기를 내.”

소니아 소토마요르가 어린이들을 위해 지은 '그냥 물어봐(Just Ask)'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책은 그가 어렸을 때 앓았던 당뇨병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누구나 아는대로 소토마요르는 라틴계 최초의 연방 대법관이다. 7살 때부터 제 1형 당뇨를 진단받았음에도 매번 번거로운 혈당 측정과 주사를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파티장에서, 법정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이 당뇨임을 밝히고 인슐린을 주사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는다. 심지어 대법관 인준 상원 청문회 과정에서 공개된 그의 당뇨병 관리기록은 의료계에서조차 감탄을 금치 못한다.

당뇨는 제 1형(Type 1)과 제 2형(Type 2)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소아 당뇨병'

abetes'로 줄여서 말하기도 한다.

포도당(glucose)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에너지 소스다. 혈액에 당(포도당)이 많으면 왜 건강에 적신호가 되는가?

포도당이 피와 합쳐지면 분자량이 커진다. 피가 걸쭉해지고 실핏줄을 통한 혈액 순환이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당뇨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될 수 있는대로 식후 운동이나 혈당강하제 복용 등을 통해 혈당을 떨어트리는 것이 필요하다.

약해 진다.

**눈**  
혈액순환이 안 될 때 망막과 수정체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백내장(cataract)이나 녹내장(Glaucoma)이 올 수 있다. 미국인들의 경우 당뇨 합병증이 시력을 잃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이다.

**발**  
고혈당이 지속되면 말초신경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 그러면 발에 감각이 없어

**신장**  
상당수 당뇨병자들은 신부전증(kidney failure)을 앓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장은 수많은 모세혈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혈액이 점성이 높으면 문제를 일으킨다. 모세혈관이 손상되면 혈액여과 능력이 떨어져 정기적으로 투석을 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이외에도 당뇨는 심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심장은 혈액을 계속 펌프해야 하는데 피가 걸쭉해지면 이 기능이 저하돼 고혈압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뇌는 에너지를 100% 포도당에서 얻는다. 피가 걸쭉해져 뇌 실핏줄을 통해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 합병증이 생기게 된다.

연구에 따르면 60대이상은 4명 중 1명 꼴로 당뇨병 환자다. 미국서 당화혈색소가 7.4 이상이면 생명보험 가입도 어렵다. 당뇨가 의심되는 경우 3개월 마다 한 번씩 피검사를 해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 당뇨는 다이어트와 운동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음식을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간다. 되도록 천천히, 그리고 싱겁게 먹는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어느 약이든 부작용은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먹지 않으면 병을 키우는 꼴이 된다. 약은 자주, 그리고 조금씩 먹는 게 좋다. 동문들이 소토마요르처럼 관리를 철저히 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바란다.

**송석주 박사는**  
유타 대학(솔트 레이크 시티) 약학박사  
아이다호 주립대 교수  
Warnar Lambert(현 화이저)  
AMGen 바이오테크



**KENNETH T. HAAN & ASSOCIATES**  
A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정확하고 강력한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계약법·상법·부동산법  
부동산 투자·개발·회사설립

보험회사·보상법  
노동법·고용법·인권법

이민법·가정법  
연방/주법원 항소·상고



한태호(문리대 75)

3699 Wilshire Boulevard, Suite 86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639. 2900 | Fax: 213. 639. 2909 | Email: kthaan@haanlaw.com | www.haanlaw.com

## 남가주 총동창회 정기총회 “팬데믹 끝났다” 200여 동문·가족 모여 ‘성황’

예상을 훌쩍 넘었다. 100여 명쯤 모이면 ‘성공작’으로 봤는데 거의 두 배나 되는 동문 및 가족들이 모였으니 행사 진행을 맡은 임원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남가주 총동창회의 정기총회는 당초 2월로 잡혔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연기돼 지난 5월 21일이나 열릴 수 있

었다. 그런 탓에 걱정이 앞섰지만 행사 시작 오후 5시 무렵에는 LA의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 그랜드 볼룸이 꽉 찼다. 이날 총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 편집자



남가주총동창회 임원진과 단과대 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최용준(수외대), 남종우(공대), 이종열(상대), 채규황(법대), 홍종화(약대), 김경무(공대), 조웅국(사대), 최재을(수외대), 양수진(간호대), 박제환 회장(문리대), 김옥권(미대), 유혜연(음대), 정신(대학원), 한석란(미대), 김희경(사대), 송미선(음대), 김양희(음대), 최경석(사대).



장진영(음대 88) 동문의 지휘하는 남가주서울대합창단(단장 김병완 공대)이 코믹한 연기와 함께 노래를 불러 몇차례나 앙코르가 터져나왔다.

1부는 정기총회 순서. 엄숙하게 진행돼야 할 행사가 시작부터 웃음이 터져 나오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사회자는 김희경(사대 80) 총무. 애국가에 이어 교가 제창 순서가 되자 모두 앉아 불러도 된다고 짐짓 ‘인심’을 썼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항의(?)가 쏟아져 나왔다. “그럼 모두들 일어나 불러주세요” 못이기는 척 사회자가 자신의 발언을 뒤집자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다.

축사 순서에서도 반전이 일어났다. ‘축사=지루’ 공식 탓에 분위기가 다소 험클어졌으나 노명호(공대 61) 미주 동창회장이 이를 바로 잡았다. 테이블에서 선채로 딱 한마디 했다.

“동문님들, 팬데믹도 이제 끝물이니 오늘 맘껏 재밌게 놀다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 이상강(의대 70) 차기 미주 회장도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며 덕담을 건넸다.

무릇 잔치에서 인사말은 짧을수록 좋다는 경구를 실천에 옮긴 셈이다. 참석자들도 이들의 짧은 축사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이날의 주인공 박제환(문리대 75) 남가주 총동창회장은 자신의 경험에 빚댄 취임인사를 해 공감을 이끌어냈다.

언젠가 교회 청소년 모임에서 회원들이 먹고 난 뒤 설거지를 해야 했는데 다들 가버리고 혼자 남았다는 것. 그 많은 접시와 그릇들을 닦았지만 ‘나 몰라

라’ 가버린 젊은이들에 괴씸한 생각이 전혀 안 들었다고 했다. 되레 설거지를 끝내고 나니 기쁨이 넘쳐 흘렀다며 그때 비로소 ‘봉사가 이런 거구나’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기동안 봉사하는, 동문들을 섬기는 회장이 되겠다고 다짐해 격려의



김주혜(음대 06) 동문

### ‘돈 놓고 돈 먹기’ 현금 경품에 저마다 ‘눈독’ ‘1분짜리 축사’에 “멋지다, 최고다” 엄지척 2006 학번 동문 참석에 우레같은 박수터져

박수를 받았다.

가장 주목을 끈 이는 김주혜(음대 06) 동문이었다. 사회자가 2000년대 학번 동문이 있다고 문자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선배동문들에게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다.

1부 순서의 마지막은 음대 동문들의 축하 음악회가 장식했다. 남가주의 ‘최강 듀오’ 최혜성(플룻)·윤희진(하프) 99학번 두 동문이 출연, ‘사랑의 인사’와 ‘타이스 명상곡’ 등 주옥같은 음악을 선사했다.

김주혜 동문도 푸치니의 ‘오 미오 바비

노 카로’(오 내 사랑하는 아버지) 등 오페라 아리아를 불러 선배들의 격려에 화답했다.

디너에 이어 2부 순서는 송미선(음대 89) 동문의 사회로 진행됐다. 먼저 남가주 서울대 동문 합창단(단장 김병완·공대 58)이 장진영(음대 88) 동문의 지휘로 ‘고향의

할까.

와인도 이날 화제가 되기에 충분했다. 사회자가 “경품으로 와인 받고 싶은 분 있느냐”고 문자 서치원(공대 69) 전 회장이 “나요”하고 소리쳤다. 말이 씨가 됐는지 진짜서 동문이 당첨돼 축하의 박수가 요란하게 터졌다.

그런가하면 야유(?)가 나오기도 했다. 1부 사회를 본 김희경 총무(사대 동창회장 겸임)가 제공한 경품이 발단이 됐다.

공교롭게도 박제환 회장이 당첨된 것. 총무가 회장에 ‘상납’한 모양새가 됐으니 폭소가 터져나온 것.

심지어 어느 동문은 경품으로 회장을 매수해 차차기 회장을 노린 것 아니냐며 익살을 떨어 또다시 웃음이 터졌다. 김 동문은 LA 한인사회에선 ‘MIT 박사출신’ 패션 모델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날 최대의 관심사는 한국왕복비행기표 추첨. 모든 동문들의 눈과 귀가 사회자의 입에 쏠렸다.

당첨 티켓을 건네받은 사회자가 갑자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머~. 어찌지요. 제가 당첨됐네요.” 송미선 동문은 자신도 못믿었는지 연신 ‘OMG’를 되풀이 했다.

‘신록의 상징’ 자카란다의 보라색 꽃잎이 흩날리는 5월의 남가주. 200여 동문들의 웃음꽃과 어우러져 더욱 싱그러운 하루가 됐다.

취재=김양희(음대 77)



워싱턴 D.C. 인근에 살고 있는 동문들이 모처럼 나들이를 했다. 목적지는 버지니아주의 윌리엄스버그.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친 패트릭 헨리 등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논의했던 역사적인 곳이다.

## ‘윌리엄스버그’로 가는 길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정종욱 전 수석의 북핵에 얽힌 비화 소개도

5월 7일 아침, 가랑비가 내렸다. 오늘 우리가 가게 될 윌리엄스버그(Williamsburg)는 날씨가 괜찮을 것이라는 일기 예보가 있었다. 7시 30분 메릴랜드에 있는 ‘코리안 코너(Korean Korner)’ 앞에 갔더니 버스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어 시작부터 운전기사가 믿음직스러웠다.

버스는 메릴랜드에 살고 있는 동문들을 싣고, 버지니아의 애난데일로 향했다. 그곳에서 기다리던 동문들이 다 타니 총 43명이었다. 버스는 8시 30분 윌리엄스버그를 향해 출발했다. 이 옛 도시는 1699년부터 1780년까지 버지니아의 수도였다.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김영삼 대통령 때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정종욱(문리대 59) 동문이 재미있는 일화를 얘기했다.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정부가 북한 영변 핵시설 폭파계획을 실행할 경우, 북한의 장사정포가 서울에 떨어질 것을 우려한 김영삼 대통령이 이 계획을 적극 반대, 결국 미국이 포기했다는 내용의

비화를 들려줬다.

이외에도 정 동문이 주중대사로 있을 당시 주체사상 이론가로서 북한의 최고 위급 인사인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정치망명에 얽힌 비화를 소개하는 등 긴박했던 한반도 상황을 설명해 동문들의 이해를 도왔다.

12시 정오 무렵 윌리엄스버그 관광안내소에 도착하니 날씨가 좋았다. 식민지 시절의 주지사 관저(Colonial Governor’s Palace)가 가까이 있어 걸어서 그리로 갔다. 그 당시 주지사는 영국에서 파견됐다. 주지사 관저의 주택구조는 크고 화려했으며 신록이 짙은 5월의 화단에는 아름다운 꽃이 만발했다.

미국이 독립한 후 마지막 두 주지사는



영국의 폭정에 항쟁했던 패트릭 헨리와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었다. 특히 헨리는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명언이 고교시절 교과서에 실려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인물이다. 윌리엄스버그 히스토릭 디스트릭트에는 당시 사람들이 살

았던 마을이 복원되어 야외 박물관으로 공개돼 있었다. Duke of Gloucester Street를 걸으며 교회, 법원청사, 인쇄소, 병기고, 시장거리, 대장간, 직조장, 술집, 빵집을 보았고 봉사자들이 당시의 의상을 입고 맡은 일을 재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Nicholson Street에서는 감옥, 제재소, 인디언 캠프 등을 둘러보았다.

Duke of Gloucester Street를 걸으며 교회, 법원청사, 인쇄소, 병기고, 시장거리, 대장간, 직조장, 술집, 빵집을 보았고 봉사자들이 당시의 의상을 입고 맡은 일을 재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Nicholson Street에서는 감옥, 제재소, 인디언 캠프 등을 둘러보았다.

Duke of Gloucester Street이 끝나는 곳에 2층으로 된 주청사가 있었다. 이곳은 주 상원과 하원이 있었던 곳이며 패트릭 헨리, 조지 워싱턴, 조지 메이슨, 조지 와이스, 리처드 헨리 리, 토머스 제퍼슨 등이 모여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논의하기도 했다.

윌리엄스버그 관광을 끝내고, 오후 4시 30분 관광안내소를 출발해 하야시라는 일본식당에 들러 스시로 저녁식사를 잘 먹은 후 다시 버스를 탔다. 9시 지나서야 애난데일에 도착했다. 날씨가 좋지 않았지만 버스가 안디가 운전 잘해 편안하게 여행했다.

드디어 밤 10시 즈음 코리안 코너에 도착했을 때 권정도 동문이 “오늘은 참 재미있게 보낸 날” 이라고 해 모두들 아이들 같이 웃으며 공감했다.

콜로니얼 윌리엄스버그 투어 비디오를 첨부한다.

<https://youtu.be/xX70miQKSnc>  
취재=박숙자(Mrs. 황보한)



미국 독립기념일 워싱턴

# 거북선 퍼레이드

미주 서울대인의 정성이 이순신 거북선을 세계에 빛냅니다





거북선 모형 제작 장면



**송금 방법** \$100 또는 자유 금액 수표를 아래 명의와 주소로 우송

**보내실 곳** Yisunsin America Institute  
P.O.Box 9584, McLean, VA 22102

**노명호 (16대 회장단) 특별기여 \$1,000**

신동국 (CA - \$200)	박은호 (MD - \$200)
김기현 (NC - \$200)	서휘열 (VA - \$1,000)
은봉수 (VA - \$200)	김중호 (MD - \$1,200)
서영 (MI - \$100)	



간사 이우진 (농대 86) 703-470-7282 towoojin@gmail.com • 자문 이내원 (사대 58) 703-725-8910 naewonlee@yahoo.com





“무탈하셨습니다”

미네소타 봄 야유회 ... 밀린 회포 풀어  
'라떼는 ~' 풍자어에 빚댄 강연 큰 울림줘

“무탈하시네요. 반갑습니다.”

미네소타주 동창회의 봄 야유회가 지난 5월 7일 미니아폴리스 인근의 토니 슈미트 리저럴 파크에서 많은 동문 및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야유회는 원래 1년에 한 차례 열리는 행사다. 그러나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된 동문들의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봄 가을 연 2회 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야유회 이후 거의 6개월만에 다시 모임을 갖게 된 것이다.

이날 야유회에는 신규회원들을 포함해 모두 4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밀린 회포를 풀었다.

차재호(농생대 84)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두 건강한 모습을 뵙게 돼 무척 반갑다”며 “앞으로 더 많은 젊은 세대 동문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야유회는 동문회 행사 중 연말 총회 다음으로 큰 행사다. 이날 회장단은 바베큐 등 푸짐한 음식을 준비해 분위기가 더욱 화기애애해졌다. 이날 모임에선 여성동문들이 주도해 대학원생들과 포스트닥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



미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황효숙(사대 65) 전 회장은 기성세대를 풍자하는 유행어 '라떼는 말이야!~'를 주제로 발언을 해 참석 동문들에게 큰 울림을 줬다. 황 전 회장은 선배들이 젊은 세대 동문들에게 '라떼~'를 들먹이며 가르치려하지 말고 후배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것이 바람직한 선후배 관계라고 강조해 큰 박수를 받았다.

한편 동창회는 앞으로 대면모임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7월 중 이사회에 이어 9월 초에는 신입생 모임, 9월 중순쯤 가을 야유회, 10월 말에는 볼링 모임이 일정에 잡혀있다.

취재=용정식(농생대 86)

골든클럽 하반기 일정  
뉴멕시코 5박 6일 여행

시카고 골든클럽이 하반기 여행 일정을 발표했다. 스케줄은 다음과 같다.

▲7월 데이 트립: 밀워키 아트 뮤지엄 & 제네바 보트 투어(7월 14일, \$128)

▲10월 트립: 뉴멕시코 5박 6일(10월 17~22일, \$1,590).

한편 지난 6월 2일 열린 모임에선 정

해일(상대 61) 동문의 비트코인/기축통화, 흥청일(약대 57) 동문의 셀폰 카메라와 관련한 강의를 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7월 7일 예정된 모임에선 한경진 동문이 'aging at own home'을 주제로 발표한다.

문의: snuaachicago@gmail.com

시카고 북클럽 8월 모임  
밤의 여행자 · 오버스토리

시카고 동창회가 주관하는 북클럽의 두 번째 모임이 8월 6일 열린다.

북클럽 간사를 맡은 박종희(의대 69) 동문은 윤고은의 '밤의 여행자(Disas-

ter Tourist)'와 리처드 파워스의 '오버스토리(Overstory)'를 추천했다. 북클럽에서 토론할 두 소설은 한글번역판으로도 나와있다.(www.aladin.co.kr).

장학기금마련 골프 대회 '성료'  
약정금 포함 2만 3,600불 모금



뉴욕 동창회(회장 김영천·약대 72)의 장학기금조성을 위한 골프 토너먼트가 지난 5월 18일 워크윌 골프클럽에서 열렸다.

이날 현재 모인 장학기금은 약정금 포함해 모두 2만3,600 달러로 집계됐다.

조상근(법대 60) 장학위원장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동문 유학생들과 동문 자녀들을 위해 이 기금을 유용하게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창회는 연례 피크닉 및 정기이사회를 오는 8월 20일 로클랜드 레이크 스테이트 파크에서 개최한다.

취재=허유선(생과대 83)

명복을 빕니다



박용순(의대 53) 동문

시카고의 박용순(의대 53) 동문이 지난 5월 14일 별세했다.

유가족 측은 영결예배는 21일 콜로니얼 장의사에서 열렸다고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다고 말했다.

고인을 추모하며

다음은 박용순 동문의 의대 동기인 최의필 동문이 본 회보에 보내온 추모

의 글이다.

‘제이슨’ 박용순(1935~2022) 동문은 첫째 훌륭한 정신과 전문의다. 환자의 얘기를 잘 들어줄 뿐 아니라 환자와 생활을 같이하는 열정을 가진 좋은 의사다. 연말이 되면 환자와 생활계획을 같이 하고 분석하고 설명해 주곤 했다.

둘째, 그는 기업인이다. 두개의 큰 사무실을 갖고 그곳에서 환자들을 위한 예방의학적인 공간으로 활용했다.

셋째, 그는 체육인이다. 테니스와 골프로 다져진 ‘철의 남자’ 다.

넷째, 그는 가정인이다. 아들 셋이 있고 애처가다. 또한 바둑 애호가여서 그와 함께 지낸 많은 동문들의 그리움을 산다. 친구의 명복을 빌며 함께 보낸 지난 날들을 돌아본다. 유가족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유춘식(공대 62) 동문

유춘식(공대 62) 동문이 지난 5월 24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경기고·공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한 고인은 대우그룹에 입사해 대우자동차 사장을 지냈다.

퇴직 후에는 대우세계경영연구소에 몸담고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글로벌 청년사업가 양성에 힘썼다. 2018년 이후 시애틀에 거주해왔다.

Century Foundation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300만불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213) 908-5586





## 포토맥 포럼 첫 '스테이지 리딩' 해조음 공연에 120여 관객 몰려

웃음이 가득한 한마당 잔치로 치러진 행사였다.

지난 5월 28일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의 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펼쳐진 '팔봉' 김기진의 중편소설 '해조음(海潮音)' 스테이지 리딩은 생소한 연극 장르에도 불구하고, 120여 명의 관객들이 몰려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를 주최한 포토맥 포럼의 이영목(공대 59) 회장은 인사말에서 "현대 문학예술의 흐름은 크로스오버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소설작품을 대화체의 시

나리오로 탈바꿈시켜 문인들과 관객 모두가 참여하는 실험적인 무대를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조음은 1930년대 조선일보에 연재돼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정어리 잡이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본인들의 착취과정을 예리하게 파헤쳤다.

이날 해조음의 스테이지 리딩은 곽태조의 플롯 독주 '홍도야 우지마라'로 막을 올렸다. 출연진은 이영목 동문을 비롯해 워싱턴 지역의 60~80대 한인 11명.

연극은 주인공이 바다에 몸을 던지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어 출연자 전원이 무대에 올라 '아리랑'을 부르며 피날레를 장식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시나리오 각색은 이영목 동문이 직접 썼다. 워싱턴 문인회장을 지낸 바 있는 그는 단편 '워싱턴의 도박꾼'으로 등단한 소설가다.

이날 공연에 참석한 권세중(사회대 85) 워싱턴 총영사는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런 행사가 마련돼 반갑다. 해조음이란 것은 곧 사회개혁을 담은 소리라는 의미로 요즘의 시대적 요구와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멋진 무대였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주최 측은 이날 관객들에게 점

심을 무료로 제공했다. 서윤석(의대 62) 동문이 팔봉문학상 수상 상금을 포토맥 포럼에 기부하자 이 돈으로 점심을 대접하게 된 것이다.

### 스테이지 리딩(Stage Reading)이란...

극단에서 연극에 출연한 배우가 선정되면 극장과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극장주와 프로듀서를 초빙, 배우들이 각자의 배역에 맞춰 대사를 읽은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투자자를 찾기 위한 쇼케이스라 할 수 있다. 낭독극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때문에 의상과 분장 보다는 목소리에 더욱 집중한다.

취재=한정희(미대 81)

## 사진작가 고석자 동문 개인전 이탈리아 중앙현대미술관 초대



어 작품집 '모노비전'이 5개국에서 금상을 타는 등 국제적인 관심을 끌게 되자 이탈리아 미술관 측에서 고 동문을 특별 초청, 전시회를 갖게 된 것이다. 고 동문은 뉴욕사진대학원(NY Institute of Photography) 출신의 베테랑 사진작가다.

고 동문은 "동양적 고요함을 흑백사진으로 섬세하게 표현한 것이 좋은 인상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탈리아에서 전시되는 사진 작품들 중 11점을 샤토 갤러리에서도 전시, LA에서도 관람객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동문의 이탈리아 초대전은 6월4일부터 6주간 계속된다.

샤토 갤러리:

3130 Wilshire Blvd., Los Angeles

www.shattogallery.com

문의: (213) 277-1960

사진작가 고석자(문리대 72·LA 샤토 갤러리 관장) 동문이 이탈리아 움베르티네(움브리아주 수도) 중앙현대미술관(Centro per l'Arte Contemporanea) 초대 개인전을 갖는다.

이 전시회에서 고 동문은 '고요(serenity)'라는 주제로 흑백사진의 정적인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는 고 동문이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뉴욕의 루시 파운데이션에서 '올해의 작가상'(2021년)을 받는데 이

## 중신이사 코너

### 임헌민(공대 84) 동문

#### "동창회는 내게 정신적 지주예요"



틀/레드몬드) 윈도우 OS 개발팀에서 20년 째 일하고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윈도우 XP와 맞닿는다.

임 동문은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 과학자들을 위한 멘터 활동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있다.

인생 최대의 변화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임 동문은 서슴지 않고 세가지를 들었다.

뭐니뭐니해도 서울대 진학이 첫째다. 다음은 아내와의 결혼, 그리고 미국이민을 꼽았다.

임 동문은 워싱턴주 동창회의 터줏대감이나 다름없다. 동창회 총무만 올해 15년째여서 모르는 동문들이 거의 없을 정도다.

"동창회는 제게 정신적 지주나 마찬가지일 만큼 소중한 곳입니다. 선배 동문님들을 만나 그분들로부터 삶의 가르침을 받지요. 그동안 동창회와 멀리 떨어져 살았던 동문들에게 꼭 권유하고 싶습니다. 동문 모임에 참여하라고요. 삶 자체가 풍성해져요."

취재=홍선례(음대 70)

"10살이 될 때까지도 전기구경을 못했어요."

임헌민(공대 84) 동문이 자란 곳은 본인 표현에 따르면 충청북도 두메산골이다.

서울에 올라오니 모든 게 낯설고 생소하기만 했다. 그런 임 동문에게 서울대학이 더 큰 세상을 꿈꾸게 만들었다. 친구를 사귀고 공부하고... 임 동문에게 인생의 모든 것이 서울대학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원래 전공은 기계공학이었다. 그러나 세상을 움직이는 컴퓨터의 매력에 푹 빠져 평생의 '업'이 됐다.

삼성전자에서 사회생활의 첫 발을 댄 임 동문은 미국으로 이주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시애틀)



## Dr. 이덕송의 유머 코너

### 의부증

의부증이 심한 아내가 와이셔츠에 여자 머리카락을 묻혀 온 남편을 보고 소리쳤다.

아내: 도대체 어떤 계집애랑? 으이그, 내가 못 살아!

다음날 남편은 머리카락이 없음을 확인하고 의기양양하게 귀가 했는데,

아내: 흥! 이젠 대머리 계집애랑 놀아나는군!

###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마누라가 갑자기 예뻐보인다 (백내장)

마누라를 보면 가슴이 뛰다(부정맥)

마누라가 시키는대로 한다(치매)

마누라가 자주 천사처럼 느껴진다 (정신착란)

마누라와 걷는데 자주 뒤쳐진다 (관절염)

마누라와 달콤한 커피를 마시고 싶

다(당뇨병) (의대 54)

# 명인의 손끝에서 빚어진 국악의 향기

## “즐거우나 넘치지 않고, 슬프나 비통하지 않으니...”

지하 연습실로 내려가는 나의 발걸음은 항상 즐겁다. 나와 질풍노도의 삶을 함께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아들 ‘정악 가야금’ 과 둘째 딸 ‘산조 가야금’, 그리고 막둥이 딸 ‘25현 가야금’ 까지... 전통부터 현대음악까지 나와 즐거운 여정을 함께 하는 아이들이 있기에

언제나 든든하다.

가야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악기로 삼국사기에 따르면 가야의 가실왕이 6세기 경 당나라의 악기를 본떠서 만든 것으로 나와있다. 이후 우륵에 의해 신라에 전해졌다.



정은선  
음대 04

오동나무 위에 겹겹이 꼬아진 명주실을 기러기 발 모양의 안족(雁足)이라 불리는 브리지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뜯거나 튕기면서 연주한다.

가야금은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 12현을 가지고 있는 정악 가야금, 산조 가야금과 더불어 13, 15, 17, 18, 21, 22, 25현 가야금까지. 개량된 악기들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는 창작 활동들은 전통음악과 함께 국악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정악 가야금, 산조 가야금, 25현 가야금을 통해 국악을 소개하고자 한다.

온유하고 단정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첫째 아들 정악 가야금은 바를 정(正), 음악 악(樂)의 의미와 같이 곧고 바른 음악을 추구한다. 국악의 한 장르인 정악을 연주할 때 사용했던 악기가 정악 가야금이다. 다른 국악기와 합주로 연주돼 왔으며 궁중과 지식층에서 많이 즐겼다.

### 정악 가야금

우륵이 만든 첫 가야금이 현재 정악 가야금과 많이 닮았다. 이 음악은 조선 세종때 음의 길이 및 높이를 정(井) 모양의 칸에 기록한 ‘정간보(井間譜)’라는 악보

**영산회상(靈山會相)**

정악의 대표적인 기악곡 ‘영산회상’을 연주하고 있는 국립국악원 정악단. 석가모니의 설법장소로 널리 알려진 영취산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영산회상은 불교에 바탕을 둔 노래곡이었으나 유교사회인 조선왕조에 이르러 불교적 색채가 약화되고 노래곡은 기악으로 변화해 정악의 대표적인 악곡이 됐다.

여덟, 혹은 아홉 곡의 작은 곡들이 모여 큰 곡을 이루는 일종의 모음곡이다. 느리면서도 유장한 기풍이 느껴지는 ‘상령산’으로 시작해 선비들의 우아한 흥이 전해지는 ‘군악’까지 전 바탕을 연주하면 약 1시간 가량이 소요된다.

영산회상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거문고가 중심이 되는 ‘현악 영산회상’, 향피리를 중심으로 하는 ‘관악 영산회상’, 현악 영산회상의 기본 음역을 4도 낮게 바꾼 ‘평조회상’으로 나뉜다.



**황병기 교수**

‘가야금의 명인’으로 국악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기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가야금 소리에 매료돼 평생을 가야금과 함께 살았다. 서울대 법대(54학번) 재학 중 전국국악콩쿠르에서 1등을 하면서 국악인의 길을 걷게 됐다. 그의 작곡한 ‘미궁’은 두고두고 회자되는 작품이다. 이 곡이 초연됐을 때 관객이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가기도 했고 인터넷에서 ‘세 번 들으면 죽는다’는 괴담이 떠돌기도 했다. 부인인 소설가 한말숙(문리대 50) 여사와는 가야금을 함께 배우며 부부의 연을 맺었다. 황 교수는 지난 2018년 타계했다.

에 기록돼 지금까지 연주되고 있다. 우륵은 그의 제자들이 편곡한 음악에 대해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낙이불류 애이불비 가위정야(乐而不流 哀而不悲 可謂正也)’. 풀이하면 ‘즐거우나 넘치지 않고 슬프나 비통하지 않으니 가히 바르다고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악을 나타내는 가장 멋진 말이 아닌가 싶다.

### 가야금 산조

말도 많고 감정기복도 심한 둘째 딸 산조 가야금은 흠어질 산(散)과 가락 조(調)의 이름처럼 특별한 격식없이 즉흥적으로 만들어 내던 가락이 음악 그 자체가 된 ‘산조’ 라는 곡을 연주하던 악기다.

정악이 합주로 연주되는 것과 달리 산조는 독주곡 형태로 북이나 장구 반주와 함께 민중에서 전문음악가에 의해 연주됐다.

19세기 민속악을 대표하는 산조는 다양

한 장단 위에 오로지 하나의 선율로 가락을 죄었다 풀었다 하는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며 음악가가 생성과 변화를 만들어 나가며 발전돼 왔다. 아주 기교적이며 깊이 있는 성음이 요구되는 산조는 많은 연주자들이 평생에 걸쳐서 내공을 만들어 나간다.

가야금 산조는 지난 1968년 국가무형문화재 23호로 지정돼 지금까지 전수되고 있다. 1980년대부터 가야금 산조가 오선보에 채보돼 정형화된 가락으로 전해지면서 그 본연의 즉흥성을 잃어가는 아쉬움이 있지만 자신만의 흥과 멋을 즐길 줄 아는 이 아이는 언제나 빛이 난다.

### 무형 문화재

언니 오빠와는 나이차이가 많이 나지만 사회성이 참 좋은 셋째 딸 25현 가야금은 다양한 음악과 자리에서 자신을 녹일 줄 아는 아이다. 클래식 음악과 국악의 교류가 잦아지고, 국악 창작이 활기를 띠면서

25년 전에 악기 개량이 이뤄졌다. 언니 오빠와는 다르게 5음 음계가 아닌 7음 음계를 사용해 음역을 확장했으며 폴리에스터가 합성된 명주실로 더 큰 음량을 갖추게 됐다.

### 25현 가야금

25현 가야금은 많은 창작자의 사랑을 받고 있고, 국악 관현악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 장르와의 접목과 시도를 통해 국악의 지경을 넓히고 있는데 일조하는 25현 가야금은 재창조되는 전통부터 현대음악까지 아우르며 자신만의 방법으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손끝에서 튕겨나간 명주실의 울림이 오동나무를 타고 다시 나의 손으로 돌아오던 그 느낌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이 깊고 멋들어진 소리가 많은 사람의 헛헛한 마음을 푸근해질 수 있게 만드는 그날을 기다려 본다.

## 공학도들의 은밀한 ‘이중생활’ ... 그림 그리기

세상엔 정말 다재다능한 재주꾼이 많은 듯 하다. 자신이 좋아하고 타고난 재능을 꾸준히 개발한다면 언젠가 빛을 발하는 날이 온다. 다음에 소개하는 세 동문은 모두 공대 출신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좋아해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그러나 미술을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다고 했다. 갈수록 학문의 경계가 모호해진다고는 하지만 이들의 그림을 보노

라면 특출한 ‘끼’가 있는 듯 싶다. 이들을 일컬어 ‘뇌섹녀·뇌섹남’이라고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 같다. 뇌가 얼마나 섹시하면 이같은 작품이 나올지 궁금해진다. 세 동문은 모두 재료공학부 출신.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도 같은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밟고 있는 엘리트들이다.  
- 편집자



오창환  
공대 14



Shore, Acrylic on Canvas(16"x12")



Sailing, Acrylic on Canvas(15"x12")



주미송  
공대 13



나혜인  
공대 15



Sunset, Acrylic on Canvas(14"x18")



윤희경  
문리대 62

애리조나주 나바호 인디언 보호지역에서 의술을 배웠던 서울대 동문친구가 있다. 뉴욕주 의사인 이 친구는 고급 저택에 살며, 호화 유람선으로 대서양을 건너 알프스에서 스키를 타는 등 풍족한 삶을 즐겼다. 그런데 어느날 자신이 부자라는 사실을 불현듯 깨닫게 됐다고 한다.

더 당황스러웠던 점은 어린 시절 가장 싫어했던 나눌 줄 모르는 놀부가 바로 자신임을 발견한 것이었다. 부인을 설득하고 곧 실행에 옮겼다. 연방정부의 인디언 의료봉사 프로그램을 선택했다. 관습과 풍물이 전혀 생소한 나라로 이

민을 가는 심정이었다고 한다.

막상 도착하고 보니 이토록 오지인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다. 예를 들면 가장 가까운 공항이 차로 4시간 거리에, 큰 그로서리는 2시간 거리에 있었다고 한다. (30만명이 살고 있는 나바호 인디언 보호지역은 애리조나와 유타에 걸쳐 있으며 남한면적의 70%나 된다.)

할로윈에 'treat or trick'하기 위해 5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오는데 이들은 60여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버스를 타고 온다고 한다.

자원한 봉사이기에 친구는 한밤중의 응급환자도 성심껏 돌봤다. 이렇게 그곳에서 보낸 계약기간 5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한다.

서울대학교 동문은 어찌됐든 '뜰뜰이' 들이다.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속담대로 우리는 날 때부터 뜰뜰이었다. 하늘이 주신 명석한 두뇌를 선물로 받은 행운아들로 '머리부자'다. 선망이나 때로는 질시의 대상이 되는 것도 돈으

## ‘마음부자’가 되자

로는 얻을 수 없는 머리부자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물을 빨리 쉽게 이해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게다가 뜰뜰이의 핵심 자질인 우월한 판단력이 있다. 크고 작은 일에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 노력하는 머리부자여서 교육, 경제, 의학, 공학 등 여러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머리부자가 경제적으로도 윤택함은 당연한 귀결이다. 인심은 공간에서 나뉘는 여유로움은 마음부자로 이어진다. 자신만이 아닌 주위,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인디언들을 도운 그 친구가 바로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생활터전을 바꾸지 않고도 이웃을 돕는 마음부자 동문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다.

'Melas on Wheels' 프로그램을 통해 식사 조리에 어려움이 있는 노약자들에게 매주 하루 식사를 배달하는 동문들

도 있고, 공공 도서관이나 병원에서 봉사하기도 한다. 'Shine'에서 시니어의료보험을 안내하는 동문들도 있다.

그 뿐이 아니다. 음악회, 전시회, 강연회를 열어 문화생활을 즐기도록 마음부자 단체를 운영하는 동문도 있다. 모두 따뜻함을 건네는 뿌듯함을 체험하는 마음부자들이다.

동창회는 한마디로 '머리부자 클럽'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노력과 희생을 아끼지 않은 동문들이 있기에 가능하다.

장학사업을 펼치는 등 어디 내놓아도 자랑할만한 단체로 우뚝서게 됐지만 초창기에 비해서 아쉬운 면도 있다.

앞으로는 부자끼리만의, 부자끼리만을 위한 행사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자가 된 행운을 이웃과 나눌 때 비로소 참된 부자가 된다.

### 윤희경 동문은

디트로이트대 엔지니어링 박사  
포드 자동차, 존슨&존슨 시니어 연구원  
비영리단체 '보스턴 봉사회' 운영



홍경삼  
문리대 61

Following is the reprint of an essay on Korean War which appeared in the Korean Defense Veterans Association(KDVA) quarterly journal.

Winter 1950, a few months after North Korea invaded South Korea, was an especially cold season. The war was a distant thing to me, a nine-year-old boy living in a deserted outskirts neighborhood of Seoul. As the war started worsening for the South Korean side, the local police chief urged citizens to flee to the south. My mother refused to leave and remained in town, as my grandmother was ill and the children were too young to walk a long

distance. The worried chief wished us luck before the police themselves evacuated. Days later, the US Army retreated from Seoul, the capital city, which changed hands again as the People's Army of North Korea recaptured it.

Me and my clueless friends, even during this state of serious hostilities, continued to play outside, enjoying our winter adventures as usual. It all changed one day when we were sledding in the icy streets. Three North Korean soldiers were hauling a weary young American whose hands were tied behind him. The North Korean soldiers carried Soviet-manufactured "Ta Kong" rifles, named for the sound they made when fired. We used to ask North Korean soldiers to fire the rifle to hear the funny noise.

A few of us followed the American prisoner of war and the North Korean soldiers. We even laughed and taunted the American, shouting, "Hey, a Yankee!" to ridicule the

weary young man. "Looks like he got caught!" "Yankee! Yankee!" . . . the giggling and pointing went on-but just so far.

I felt for the American prisoner of war as he stared intently at me. He was about 20 feet away, his own subdued blue eyes dripping fear and despair. I felt him pleading, Who do you see in front of you? Do you see someone who deserves your sympathy?

I sat on my sled, staring back at him, unable to move. Some children continued to laugh. I can still hear, "Yankee! Yankee!" The soldiers marched the man into the woods. A short time later, we were scared when we heard the distinct "Ta" sound, then an echo.

I later learned that retreating US troops had stopped at the edge of our village, but one soldier was too exhausted to continue. The pursuing North Korean troops captured and killed him.

To me, that soldier represents the

bravery and sacrifice of a nation, the United States, that saved South Korea from a hostile invasion and helped a once-poor nation progress into a time of prosperity and peace—a thriving democracy whose citizens enjoy freedom and opportunity. But a terrible price was paid, by American heroes and others.

My family and I have made a home here in the United States since 1976. I have traveled throughout America and had opportunities to meet Korean War heroes. I also always try to find centrally located parks in towns and cities, which normally are homes to memorials for fallen local soldiers, including those killed in the Korean War.

I always feel both a deep thankfulness and sorrow every time I read the names of soldiers killed in the Korean War. I also wonder if one of those memorialized names is the young American soldier I encountered on that cold day in Korea. I cannot forget him.

## That Blue-Eyed American Soldier I Cannot Forget



송미선  
음대 89

## “릴수 릴수, 이럴수가~”

문들의 눈과 귀가 온통 내 입에 쏠렸다. 도우미 동문이 티켓 한 장을 뽑아 내게 건넸다.

혹시나 해서 결눈질로 내가 산 티켓과 대조해 봤다. 아니, 이럴수가! 대박이 터진 것이다. 마이크를 잡고는 당황해서 처음엔 말이 제대로 안 나왔다. “어머머~. 제가 당첨됐네요.” 가까스로 입을 뗐다.

여기저기서 ‘주최 측 농간 아니냐’는 웃음섞인 야유가 터져 나왔다. 무대 앞으로 나오셔서 티켓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선배님도 계셨다. 티켓을 확인하고는 “여러분, 믿어주세요. 농간은 없었습니다. 사회자에 축하의 힘찬 박수를 보내주세요”라고 응원을 해줘 한바탕 폭소가 터져나왔다.

내가 송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4년 전 쯤에도 동창회 행사에서 비행기표에 당첨된 적이 있었다. 솔직히 이번에 당첨되자마자 처음 든 생각이 ‘어마나~ 이거 어찌지’였다. 주최 측 농간 아니냐는 불멘 소리가 나와도 할 말이 없게 된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는 운이 그리

씩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동창회에 나오면 운이 따른다. 그것도 거꾸 두 번씩이나.

내가 처음 동창회에 나온 것은 4~5년 전 쯤으로 기억한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미대 선배 언니 한 분이 동창회에 가는데 심심하니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간 것이 계기가 됐다. 강신용(사대 73) 선배가 회장일 때로 기억한다.

이어 한귀희(미대 68) 동문이 회장에 선출되자 또다시 미대 선배 언니에 이끌려 동창회에 나가게 됐다. 다른 분도 아니고 미대 출신이 회장이 됐으니 나가야 된다고 해서 이후 거의 빠짐없이 동문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마침 내 딸의 한국 방문 계획을 알고 있던 그 선배 언니가 ‘그럼 비행기표나 타라’며 내게 20 달러치 라플 티켓을 사줬다. 그 중 하나가 당첨된 것이다. 얼마나 놀랐던지 ‘로또가 터지면 바로 이런 기분이겠구나’ 싶었다.

이후 감사한 마음에 다른 건 몰라도 행사 때 접수는 도와드려야겠다고 맘 먹었는데 이번에 사회까지 맡아 또 당첨의 영예를 안은 것이다.

노부모님이 늘 맘에 걸렸는데 이번에

당첨된 티켓으로 한국을 방문해 밀린 효도를 하고 돌아올 생각이다.

처음엔 쑥스러웠던 동창회 참석이 이제는 고향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고 따뜻하다. 선배님들을 뵈 때마다 부모님 뵈는 것처럼 느껴진다. 노년기에 접어들었는데도 여전히 활기있게 인생을 즐기시는 선배님들이 정말 멋있고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내가 하는 일은 은퇴연금과 롱텀케어, 상속과 리빙트러스트 셋업 등이다. 선배님들이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게 앞으로 더 열심히 도와드려야겠다고 다짐을 해본다.

이제 상은 그만 타겠다. 또 당첨된다 해도 사양하겠다. 한편으론 동문회 모임에 자주 참석하다보니 이런 행운이 주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동문 여러분, 동창회에 꼭 나가보세요. 저처럼 행운이 따른답니다.

먼저 한국왕복항공권 추첨에 당첨돼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난 5월 21일 열린 남가주 총동창회 정기총회 2부순서 진행을 맡았다. 사회는 본적이 거의 없었는데 주변에서 강권하다시피해 마이크를 잡았다. 솔직히 조금 떨리기는 했다.

2부순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비행기표 추첨이었다. 처음엔 사회를 맡았기 때문에 라플 티켓을 살 생각이 없었다. 그래도 동창회를 돕자는 차원에서 20달러치를 구매했다.

항공권 추첨 순서가 되자 동

##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 ‘U 커브’의 행복

보면 U자 모양이 된다. 처음과 끝은 20대와 60대 후반, 맨 밑바닥은 중년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일컬어 ‘U 커브’ 또는 ‘행복 곡선’이라 부른다.

미국대학의 연구결과여서 꼭 미국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전세계 80개국에서 비슷한 조사를 했는데 ‘U 커브’는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20대 후반부터는 내리막길을 달리다가 40대 후반에 이르면 최악의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자식농사는 뜻대로 되지 않지, 인생설계도 목표를 크게 벗어났지, 배우자는 늘 툭툭대지. 삶은 그저 불행의 연속일 뿐, 그래서 때로는 극단의 선택을 한다.

중년의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면 이 때부터 롤러랄라 행복이 기다린다. 왜 그럴까. 나이가 먹으면 미래를 설계하기 보다는 되도록 현재에 맞춰 살아가기 때문이다.

돈을 더벌어 성공하겠다는 욕심 따위엔 관심이 없고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

끼게 된다. 바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이유다.

그렇다면 시간의 지평이 갈수록 좁아지는 고령층의 행복도는 어떨까. 놀랍게도 80대 이상의 행복수치는 8.5에 달한 것으로 나왔다.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노인들의 푸념이 실제로 괜히 하는 말로 들린다. 행복이 이처럼 넘쳐흐르는데 왜 빨리?

실제로 미국 학술원은 삶의 진정한 행복은 85세 이후 최고조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적도 있다. 34만 명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여서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다.

몇해 전 한국에서 공전의 히트를 친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삶에서 ‘U 커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해 준다.

소녀감성을 지닌 할머니와 로맨틱 스타 할아버지의 사랑을 그린 다큐멘터리로 상영한 지 한달도 안돼 관객 400만명을 돌파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다.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사는 노부부가 특별해 보이는 건 커플 한복을 입고 신혼같이 살고 있기 때문일 터. 봄에는 꽃을 꺾어 서로의 머리에 꽂아주고, 여름에는 개울에서 물장구를 치고, 겨울에는 눈싸움을 한다.

7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부부의 진정한 사랑과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그들의 깊이 있는 이야기는 감동 그 자체다. 노부부의 ‘U 커브’는 아마 10을 쥐도 부족할 것 같다.

나의 ‘U 커브’는 과연 얼마나 될까. 중년이라면 이제 곧 행복시작 일테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자. 이제 은퇴해 연금을 받는 나이가 됐다면 인생 대박이다. 행복이 넉넉째 굴러 들어왔으니.

‘U 커브’가 최소한 8 이상은 되도록 애써 보자. 행복은 맘 먹기 나름이라고 하지 않는가.

(편집고문)

가장 행복한 세대는 과연 어느 연령층일까.

얼마전 스탠퍼드대학 연구진이 갤럽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냈다. 행복도를 1~10까지로 정하고는 나이대별로 수치화했다.

우선 20대 초·중반의 만족도는 7.5 가량. 인생을 첫 출발하는 시점이어서 꿈도 많고 앞날을 생각하면 꽤나 흥분되는 연령대다. 당연히 높을 수밖에.

반면 가장 낮은 세대는 조사 결과 40대 말과 50대 초반 사이로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도가 최저치여서 이른바 ‘중년의 위기(midlife crisis)’가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걸로 드러났다. 은퇴연령인 65세 이후는 그러나 ‘행복 시작’이다. 수치가 거의 8에 이른다.

세 연령대의 행복도를 그래프로 그려

## 20세기 가장 위대한 천재의 질타

### “서양철학 2000년은 헛소리의 역사다”

### 우크라 전쟁 관련, 러시아판 ‘동북공정’도



정태영  
문리대 71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1889~1951)은 시사주간지 타임이 20세기 가장 영향력을 끼친 100명 중 한 명으로 포함할 만큼 위대한 철학자였다.

버트런드 러셀이 비트겐슈타인을 처음 만났을 때 얘기는 지금도 철학계에서 널리 회자되는 단골 메뉴다.

러셀은 그가 ‘천재’라는 것을 즉각 알아봤다. “그는 좀 이상했다(queer). 그를 도저히 알 수 없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의 첫 학기가 끝나고 그가 내게 와서 물었다.

‘내가 멍청한 놈인지 아닌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내가 멍청하다면 나는 비행기 조종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멍청하지 않다면 철학자가 될 겁니다.’

나는 방학동안 철학에 관한 글을 하나 써오라고 했다. 다음 학기가 시작하자 그는 글을 하나 써왔다. 나는 첫 문장만 읽고 그에게 ‘자네 비행기 조종사 하지 말게’라고 말해줬다.”

#### 완벽한 천재의 전형

비트겐슈타인이 러셀에게 철학을 배운 것은 겨우 세 학기에 지나지 않았다. 러셀은 훗날 “비트겐슈타인을 알게 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정신적 경험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리고 그를 ‘완벽한 천재의 전형’으로 평가했다.

세상에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근대 정치사상의 문을 연 토머스 홉스도 그렇다. 그가 ‘리바이어던’을 출간했을 때 그는 왕당파로부터 헛소리를 넘어 위협분자로 공격당했다.

당시 일반론인 왕권신수설을 부정하고 인민과 왕간의 사회계약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즉 왕의 권력이라는 것이 인민들이 잠시 빌려준 권력에 지나지 않

는다는 것이었다.

그는 또 반대파인 의회파로부터도 공격을 당했다. 절대군주제를 옹호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헛소리하고 다닌다는 것이다.

뭐니뭐니해도 역사상 헛소리의 압권은 소크라테스다. 그는 당시 아테네의 민주정부 지도자들에 의해서 헛소리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독배를 마셔야 했다.

아테네인들이 믿는 신을 부정하고 헛소리로 청년들을 현혹시키고 타락시켰다는 것이 그에게 씌어진 죄목이었다.

소크라테스는 당시 지도자나 현인들을 찾아 다니며 끊임없는 질문을

(서양철학의 기본개념인 이데아, 정신, 신 등)을 알기위해 헛수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서른 것 넘은 나이에 철학사의 불멸의 저작 ‘논리철학논고’를 출판하면서 철학의 문제를 다 풀어 버렸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제 철학은 더 이상 없다. 철학은 끝났다”며 철학계를 떠났다.

최근엔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러시아의 정치사상가인 알렉산더 두긴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기 위해 ‘지정학의 기초’ ‘제4 정치이론’ 등의 저서를 냈다.

그러나 미국기업 아마존은 그의 저작을 헛소리한다고 판매 금지시켰다.

미없다”고 말하고 있다.

즉 우크라이나가 유라시아 문명에 속해 있고 그 문명의 맹주는 러시아이니 러시아로부터 이탈은 안 된다고 하는 제국주의적 문명관을 내포하고 있다.

#### 맺는말

헛소리에도 용기가 필요한 것 같다. 잘못 지껄이다가는 왕따를 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저작 ‘국가론’에는 플라톤 자신의 이름은 한 줄도 보이지 않는다. 대화형식으로 쓰여진 이 책에는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이고 플라톤의 형제 등등이 대화 상대자로 등장한다.

후대의 연구자들은 플라톤이 몸조심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당시 아테네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무작정 잡아 죽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오늘날 인류문명의 발전에는 저작이 커다란 역할을 한다. 그러나 책을 쓰고 출판하는 사람은 0.00001%도 안된다. 수많은 천재들이 묻힌 채 흔적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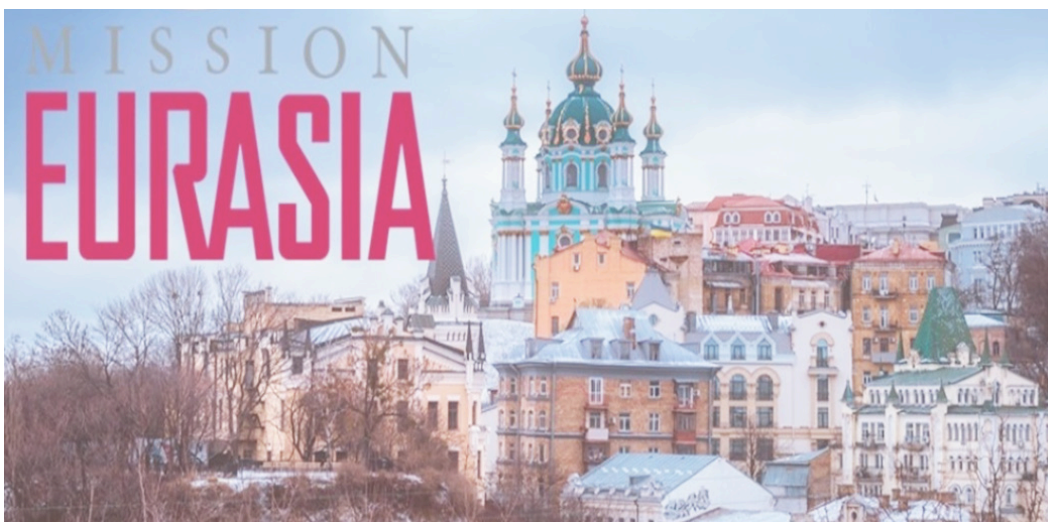
그런 점을 고려하면 헛소리처럼 들리는 생각도 저작은 아니더라도 낙서(메모) 등으로 남기는 것도 방편이다.

사람의 머릿속에 든 생각이나 천재적 사고를 현대의 과학은 물론이고 가까운 후대의 과학이 끄집어 내기는 불가능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먼 훗날 죽은 사람의 영혼에 담겨진 생각을 끄집어 낼 수 있는 과학이 발명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한 조각의 단편이 역사를 좌우한다. 기록이 없어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인류의 옛날 흔적을 찾기 위해 땅속에 묻힌 뼈 한 조각으로 인류역사가 수만 년을 왔다갔다 한다.

지금은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라지만 먼 훗날 몇 만 년 후에는 현재의 기록이 너무 없어 연구가 쉽지 않고 푸념할지도 모른다. 인간사나 개인사, 세계사의 완벽한 객관적 인식은 현 기술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사건의 한 면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의 기술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선 인류전체의 기록이 긴요할 때가 올 수도 있다. 그때쯤이면 현 시대의 인류기록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후대의 연구자들은 한탄할 지도 모른다.



퍼부어 그들이 무지하다는 것을 폭로했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뽐내는 그들에게 소크라테스는 눈엣가시나 다름없었다.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은 플라톤이 쓴 ‘국가론’에 생생히 기록돼 있다. ‘국가론’ 제 1권 정의론 논쟁에서 소크라테스는 끊임없는 질문과 반문으로 ‘소피스트’ 트라시마코스를 지치게 한다. 마침내 트라시마코스는 화를 벌컥 낸다.

#### 소피스트의 공격

“소크라테스 선생,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죠? 당신이 무엇인가 알고 싶거든 나에게 묻지만 마세요. 남이 대답하는 걸 반박하면서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라고 쏘아부쳤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헛소리에 대한 공격은 비트겐슈타인에게서 나왔다.

그는 서양철학 2000년을 ‘헛소리의 역사’라고 부정해버렸다. 알 수 없는 것

아마존에서 살 수 없는 금서가 된 셈이다.

#### 우크라이나와 두긴

두긴은 유라시아 주의, 나아가 유라시아 문명을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 있는 국가이자 세계(a state-world)이며 그 자체가 하나의 문명, 즉 유라시아 문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라시아 문명에는 아시아 정신이 깃들여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몽고가 러시아를 정복했을 때 아시아 정신이 유산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몽고를 침략자로 규정한 이전 역사관은 사뭇 다르다. 아시아 반쪽(중앙아시아, 시베리아 등)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중국식 동북공정과 프레임이 유사하다.

그는 “영토적 야망을 가진 독립국 우크라이나는 유라시아 전체에 막대한 위협이 된다.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륙정치를 말하는 것이 의

## 20세기 역사와의 대화



**신응남**  
농생대 70  
15대 미주동창회장  
변호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시작된 (2월 24일) 후 미국 주도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의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개전 전 예상과는 달리 우크라이나 점령은 답보상태이다.

미소 냉전의 시대가 끝난지 30년 후, 우크라이나 사태로 두 군사강대국의 대치가 핵을 사용하는 3차대전으로 확산의 우려가 전세계를 긴장하게 하고있다.

우크라이나 침략사태를 즈음하여, “역사는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역사가 에드워드 카의 말을 소환하며, 20세기 주요 사건을 돌아보며 교훈으로 삼으려한다.

19세기 전 유럽을 열화같이 뒤흔들었던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혁명 실험이 차르의 전제군주국가 러시아에서 불을 당겼다.

칼 마르크스 주의자로 자본주의 체제는 자체가 갖고있는, 갈등을 유발하는 계급화의 모순으로 결국 멸망하고, 공산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혁명이 미래라고 레닌은 확신했다. 그가 이끄는 다수당 볼셰비키 혁명으로 러시아뿐만 아니라 동유럽, 아시아, 남미의 여러국인들이 사회주의 체제로의 개혁을 시작했다.

레닌의 볼셰비키당은, 억압과 불평등이 없는 이상사회를 향한 갈망을 품고 차르의 전제정치체제와 대결했다. 그러나 공산당은 중앙통제 계획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생산과 관련한 의사결정권을 독점하며 개인의 자유를 말살했다. 그들은 차르가 지배했던 전제주의 체제 못지않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사라진 비인간적인 공포의 독재체제를 만들었다.

레닌과 스탈린을 통한 ‘거대한 실험’은 20세기가 끝나기 전 베를린 장벽의 붕괴(1989)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해체(1991)라는 허망한 실패로 끝났다.

그 첫번째 이유는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며 펼친 공포정치였고, 두번째는 중앙통제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이었다. 정치가와 공산당은 순수한 사회주의혁명이 꿈꾸었던 이상을 스스로 배신했다. 볼셰비키의 이상주의는 권력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으며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을 간과한 것이었다.

### 볼셰비키의 이상주의

‘사라예보사건’이 시발이 된 제 1차 세계대전은 과학의 힘으로 신무기를 동원, 3 천여만명의 전사자와 부상자를내며 1919년에 끝났다. 당시 제국주의는 종족근간의 국가주의 애국심을 총동하여 국민대중의 지지를 끌어내며, 식민주의 확보를 향한 탐욕이 과학혁명의 힘을 빌어 일으킨 반 인류적 참극이었다.

1차대전의 참상을 겪고도 또다시 인류는 20여년 뒤 제 2차대전을 일으켰다. 우수한 인종의 위대한 조국을 들먹이고 백성을 총동하여 죽음의 전선으로 내몰았던 권력자와 정치가는 아직도 있다.

과학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의 이기적 본능을 관리하는 이성엔 별로 진화하지 않은 것 같다. 2 천만명의 병사와 4천만명의 민간인 목숨을 앗아간 가공할만한 2차 대전은 원폭투하로 막을 내렸다.

20세기 러시아에서는 사회주의혁명이

무너졌고 독일과 일본제국은 패전으로 막을 내렸다. 20세기는 사회혁명 실험, 그리고 식민지확대를위한 제국들의 탐욕의 전쟁 시대였다.

사회주의혁명은 인간의 오랜 꿈을 실천하려는 이상주의 운동이었지만, 비인간적이고 전제주의 체제를 다시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멸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소비에트연방 해체는 20세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확인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 국가주의와 부족본능

인간은 찰스 다윈의 발견대로 자연선택의 진화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본능의 지배를 받는다. 역사의 시간에서 단연 위력을 보인 것은 ‘국가주의, 부족본능’ 이었다. 인간은 혈연공동체의 오랜 시간을 살아가며 부족, 국가의 안전을 위해 외부집단을 적대시하는 본능을 발전시켰다.

20세기에 벌어진 두차례 세계대전은 그 양상을 극렬히 드러냈다. 부족본능에 기초한 국가주의는 피·아를 구분하며 세상을 우리와 그들로 갈라놓았으며, 인종, 언어, 종교, 이념 정치체제 등 무엇이든 피·아 구분의 기준이되었다.

마침내 인류는 과학혁명의 힘으로 지구 생태계를 수십번 파괴할 만한 양의 핵폭탄을 비축했다.

그러나 호모 사피엔스는 핵무기, 유전자조작등의 재능은 뛰어나지만 부족본능 때문에 인류가 당면한 제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인간 탐욕의 본능을 어느정도 통제할 수 있다면 인류의 멸망은 피할 수 있을 것이나, 인류미래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 문명의 충돌

냉전이 끝난뒤 무력분쟁은 사무엘 헌팅턴이 말하는, 일부 문명간의 충돌로 옮겨갔다. 특히 종교가 부족본능을 부추겨 체제유지에 사로잡힌 종교 및 정치권력자를 총동하여 9.11 사건을 일으

켰고, 팔레스타인의 분쟁 등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지구의 주인임을 자처하는 호모 사피엔스는 과학의 힘으로 신이 되려고 한다며, 우주 왕복선은 만들었으나 가야할 방향을 잃고, 만족할 줄 모르며, 힘은 세지만 책임의식이 없는 신, 호모 사피엔스가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라인홀더 니버의 주장대로, 인간은 개인적으로는 타인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입장에서 도덕적이다. 그러나 국가라는 집단은 그들만의 정의를 앞세우는 총동에 취약하며 이성으로 견제하는 능력이 훨씬 결여되어 있다는 면에서 비도덕적이다.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적 정의의 준수를위해 권력자에 대한 부단한 감시가 요구된다. 그래야만 그들이 부족의 본능을 부추기며 시도할 위험한 실험이 가져올 수 있는 지구의 종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위버멘쉬’

인간의 위험한 ‘본성’을 관리하고 길들일 수 있는 우리의 ‘이성’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니체는 “인간은 그들의 불명예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즉 ‘위버멘쉬(Ubermensch)’로 변화하는 것이다. 위대해지고 싶다면 인간은 위대한 존재로 변신해야 한다. 그러나 그 변신을 막는 장애물이 있다. 다름 아닌 인간 자신의 ‘오만’이다”라고 말했다.

20세기의 역사를 통한 교훈으로, 정치,사회,종교분야에서 대의적 체제유지를 위한 명분을 내세우며, 오만한 권력자 손에 의해 행해지는 비인간화, 야만을 목격하면서도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인간 그리고 집단의 본성이 이끄는 탐욕으로부터 이성과 양심이 작동하는 위대한 존재 ‘위버멘쉬’로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는 것이, 21세기를 사는 호모 사피엔스에게 꼭 필요한 과제이다.

## 원고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snuausa30@gmail.com 로 보내주시시오.



## 현대 정치 이념과 한반도 사태의 고찰



김해암  
의대 52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이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가를 내다보며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어떤 이들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군사 원조를 기반으로 동부 2주, 돈 바스크와 루네스크를 탈환하려고 압박하는 경우, 러시아는 전략적 핵 무기를 사용하리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이런 서구권의 전쟁을 염두에 두면서 중국이 대만을 급습하는 경우 한반도 사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전략가들은 이런 사태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고 있다. 나는 이 글에서 지정학적 정세를 다루며 동시에 문화 철학적 판단을 시도함으로써 동서양의 철학적인 예지를 동원, 인류 생존의 확률을 높여 보고자 한다.

남한의 선거가 무사히 치러져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에 성공함에 따라 한반도는 새로운 국면에 당도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협조적이었던 반면에 윤 정부는 좀더 강력한 자기주장을 내세울 것은 명약관화하다 할 것이다. 그러면 한반도 문제는 제 궤도에 올라서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유화 정책에 실패한 통일론이 상호간의 양보와 협조를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북한에서는 오미크론의 코비드가 창궐하니 백신을 조속히 들어가게 하려면 남한이 협조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의존함 보다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하기 쉽다고 본다.

또 하나의 한반도 통일로의 길에 도움이 되는 것은 유럽의 정치적 동향이다. 러시아의 전체주의 강령에 대항하는 방법은 우크라이나의 전철을 밟지 않고 연대적 방어 동맹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인데 중립국 핀란드는 NATO에 가입하려고 나섰고, 영세 중립국인 스웨덴도 NATO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현상이 의미하는 것은 유럽이라는 지역 사회가 단합하여 하나의 독립된 경제권을 이루고 군사적 안정을 가져야 한다는 새로운 유럽 중심 의식이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언제까지나 미국의 장거리 안전 보장에 의존하겠는가 라는 명제를 유럽은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생존의 철학을 접하면서 유럽연합(EU)은 미국과 달리 러시아도 유럽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문화적인 절충을 모색한다고 보고 싶다.

이런 세계가 괄목할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는 차에, 동북아 제국들은 무

제의 차이점을 지향하는 평화에 대한 집념을 남북한 국민이 공유해야 하겠다.

여기에 절대로 필요 불가결한 조치는 남북이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인정하면서, 양국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협상은 이론적으로 현재 가능하지만, 이런 경제적, 군사적 조건들이 상재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시 말해서 남북한은 서둘러 이런 기회를 포착하여 자기 주장을 국제사회에 피력하며 남북의 절충안을 조속히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런 획기적인 통일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때가 왔다고 보아야 세계적인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조건을 좋게 보지 않을 국가

를 기원한다.

한가지 덧붙여 생각해 볼 것은 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군사 및 경제 원조를 하느냐 하는 문제다. 물론 인도적인 입장에서 자유를 사랑하는 우크라이나를 동정하여 하는 처사라고 보겠지만 미국 내 정치 태세 때문이라는 것을 러시아는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태도가 유연하다.

전쟁 초기에는 서방 유럽의 개입이 3차 세계대전으로, 또 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언론과 역사가들이 들고 나왔지만, 전쟁의 추세로 보아 러시아가 NATO에 대항할 힘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우크라이나를 무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다. 사실상 미국은 전쟁을 통하여 부강해진 나라이

므로, 이라크, 아프간 전쟁을 이끌어 옴으로써 군사력의 발전과 우위성, 무기 판매의 이득을 유지해 왔다. 정치적으로 바이든 정부는 금년 말에 있는 중간 선거에서 상하원 의회의 다수석을 차지하려는 의도로서 전쟁의 위험을 도전하는 것이다.

미 국민은 언제나 전쟁때는 정권의 변화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양 정당이 잘 알고 있는 터이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문제가 되지만 국민은 전쟁의 악자를 돕고 자유를 옹호하는 정당에 호응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 대법원

에서 판결이 나게 될 Roe Vs Wade의 여성들의 낙태 옹호와 함께 민주당의 중간 선거에 승리를 꾀하고 있다.

미 의회 양당 지도자들이 연이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것을 보아도 전쟁과 선거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런 양당정치의 판국을 바라다 보며 민주당의 의회 침범을 대중 심리 처사로 보는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의 트럼프 공화당 우파와 미 의회 침범을 반란 내지 쿠데타 시도의 실패로 보아, 현 민주당 정부가 끝까지 책임추궁하는 것이 중간선거에서 어떻게 판가름 될지 전념하는 때에, 남북한은 중립화운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끝으로 새 정부의 외교력 신장을 기대해 보면서 창의적인 통일 대안과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여 빈틈 없는 외교를 펼쳐 가기를 기대해 본다.



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도 동북아의 국소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세계의 흐름을 보면서 한반도의 상황을 직시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반도는 새로운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존재의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럽국가들이 중립을 포기하는 때에 한반도는 중립국 선언을 함으로써 쉽게 주변 국가들의 인준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중립국 선언과 동시에 선명할 수 있는 것은 중립을 보장하는데 절대 필요한 조건은 한반도의 안전 보장이다.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은 핵무장을 하는 것인데, 국제 사회가 남북한이 공동으로 핵무기를 관리하는 조치를 인정함으로써 남한이 북한의 경제발전을 돕는 방도이다.

이런 방법은 문화 철학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며, 정치 사상의 차이와 정치 체

는 미국이다. 여지껏 북한의 핵 무기 포기 없이는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해 온 미국과 이에 동조해 온 남한이 남북한의 핵의 공동 관리를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중국과 대만의 문제다. 한반도의 중립화는 대만 문제의 해결책을 내다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미국에 제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반도가 중립노선을 걷는다면 대만도 같은 중립을 선언하고 한국식 상호 협조를 가짐으로써 동아시아의 안정을 기대해 보는 것이다.

대만 문제는 한반도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성급한 문제라고 보겠는데,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시도함으로써 대만 문제의 선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좀더 나아가 남북한의 정치 이념의 차이점 철학적 의미를 고려해야 함은 당면해야 할 숙제로 삼고 우선 중립 선언의 회동이 있기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3백만불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6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총 모금액 \$1,111,902 (모교발전기금 포함)

## 종신이사

###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워싱턴주 -故고광선(공대57)

### 플래티넘이사 (\$50,000이상)

조지아 - 주중광(약대60)  
조지아 - 허지영(문리66)

### 골드이사 (\$10,000이상)

남가주 - 김일영(의대65)  
남가주 - 노명호(공대61)  
남가주 - 박창규(약대59)  
남가주 - 서치원(공대69)  
남가주 - 성낙호(치대63)  
남가주 - 심화섭(약대61)  
남가주 - 이병준(상대55)  
남가주 - 이홍표(의대58)  
남가주 - 한홍택(공대60)  
네바다 - 정상진(상대 55)  
뉴잉글랜드 - 박영철(농대64)  
뉴잉글랜드 - 윤상래(수의62)  
뉴잉글랜드 - 정선주(간호68)  
뉴잉글랜드 - 최홍균(공대69)  
북가주 - 김정희(음대56)  
북가주 - 민병곤(공대65)  
북가주 - 전해경(문리67)  
시카고 - 이용락(공대48)  
워싱턴주 - 양남주(명예이사)  
코네티컷 - 오인석(법대58)  
워싱턴DC - 이태영(법대60)

### 실버이사 (\$5,000이상)

남가주 -故김원경(약대59)  
남가주 - 김병연(공대68)  
남가주 - 이종도(공대66)  
남가주 - 정재훈(공대64)

남가주 - 한귀희(미대68)  
루지애나 - 강영빈(문리58)  
워싱턴주 - 김재훈(공대72)  
워싱턴DC - 남옥현(경영84)  
조지아 - 김경숙(사대64)  
조지아 - 김태형(의대57)  
필라델피아 - 이만택(의대52)

### 종신이사 (\$3,000이상)

남가주  
故서영석(의대55)  
故오재인(치대33)  
故윤낙승(의대60)  
강신용(사대73)  
곽용길(문리59)  
권기홍(의대60)  
권봉성(문리64)  
김경숙(간호68)  
김기형(상대75)  
김동훈(의대71)  
김보연(간호63)  
김상찬(문리65)  
김성호(법대64)  
김수영(사대57)  
김재영(농대62)  
나두섭(의대66)  
노재성(법대58)  
류재풍(법대60)  
박명근(상대63)  
박용필(문리66)  
박원준(공대53)  
박윤수(문리48)  
박종수(수의58)  
방명진(공대73)  
백만일(공대64)

서동영(사대60)  
심상은(상대54)  
오홍조(치대56)  
이근원(공대67)  
이명선(상대58)  
이세열(사대57)  
이승훈(상대74)  
이청광(상대61)  
임낙균(약대64)  
임용오(의대57)  
전희택(의대58)  
정동구(공대57)  
정임현(간호72)  
정철룡(의대55)  
제영혜(가정71)  
조용원(문리66)  
조한원(의대57)  
차민영(의대76)  
차중환(사대54)  
하기환(공대66)  
한호동(공대58)  
홍병각(문리55)  
홍성선(약대72)  
홍중화(약대74)

### 뉴욕

故김광호(문리62)  
故한창섭(문리57)  
강에드워드(사60)  
고애자(음대57)  
김승호(공대71)  
김종률(사대51)  
김한중(의대56)  
김해암(의대52)  
석창호(의대66)

신용남(농대70)  
윤종숙(약대66)  
이강홍(상대60)  
이기영(농대70)  
이대영(문리64)  
이재덕(법대60)  
이재량(상대61)  
이전구(농대60)  
이준행(공대47)  
이태호(상대 58)  
최수용(상대55)  
최영태(문리67)  
추재욱(의대57)  
한태진(의대58)  
허선행(의대58)

### 뉴잉글랜드

故고일석(보건69)  
故박경민(의대53)  
고종성(사대75)  
김문소(수의61)  
김용구(공대66)  
오세경(약대61)  
윤선홍(치대64)  
이의인(공대68)  
전신의(문리57)  
정정욱(의대60)  
정태영(문리71)  
홍지복(간호70)

### 워싱턴DC

공순옥(간호66)  
박평일(농대69)  
서희열(의대 57)  
오인환(문리63)

이내원(사대58)  
이윤주(상대 63)  
최지원(의대61)

### 미시간

故남상용(공대52)  
정태(의대 57)

### 샌디에고

임천빈(문리61)

### 북가주

강재호(상대57)  
손석보(공대68)  
윤정욱(약대50)  
한만섭(공대49)

### 시카고

심상구(상대63)  
이재희(치대67)  
장윤일(공대60)  
조봉완(법대53)  
최의필(의대53)  
한재은(의대59)

### 오레곤

김상순(상대67)  
이은상(상대52)

### 미네소타

김관식(공대61)  
김태환(의대58)  
남세현(공대67)  
변우진(인문81)  
조형준(문리62)

황호숙(사대65)  
강연식(사대58)  
권기현(사대53)  
민흥기(문리61)  
방은호(약대43)

### 아이오와

김시근(공대72)

### 오하이오

김용현(경영66)

### 워싱턴주

故김영일(공53)  
이명자(간호74)  
이희백(의대55)  
임현민(공대84)

### 조지아

김용건(문리48)

### 코네티컷

유시영(문리68)

### 플로리다

김중권(의대63)

### 텍사스

박태우(공대64)  
이광연(공대60)  
조시호(문리59)

### 필라델피아

고병은(문리55)  
김영우(공대55)

김현영(수의58)  
서종민(공대64)  
손재욱(가정77)  
신성식(공대56)  
신의석(공대53)  
주기목(수의68)

### 하틀랜드

김경숙(가정70)  
김명자(문리62)  
배규영(사대68)  
오명순(가정69)  
이교락(의대53)  
이상강(의대70)

### 휴스턴

박진섭 (의대 67)

### 이사 구분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골드이사  
\$10,000 이상

실버이사  
\$5,000 이상

종신이사  
\$3,000 이상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213-908-5586

www.snuaa.org  
news@snuaa.org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 분담금, 우크라이나 기부금 2021.7.1 - 2023.6.30

일반후원금

남가주	
강신용(사73)	200
구철희(의78)	125
권기상(대72)	105
김동석(음64)	200
김병연(공68)	200
김새담(법55)	25
김영(수63)	500
김영봉(사60)	200
김원중(지66)	75
김영희(간54)	50
김은숙(미62)	1,000
김은중(상59)	400
김종섭(법66)	100,000
노명준(공61)	25,000
노진걸(사70)	200
박용필(문66)	1,000
박우선(공57)	500
박원준(공53)	200
박은숙(미62)	200
박중수(수58)	12,000
박혜란(음72)	300
방석훈(농55)	500
성주경(상68)	200
손영아(음)	15
송영두(공59)	200
신영찬(의63)	200
안혜정(생77)	200
오찬수(약57)	200
오홍조(치56)	50
이명선(상58)	500
이범식(공61)	375
이병준(상55)	3,000
이소희(의61)	75
이장길(치63)	50
이창신(법57)	500
임낙균(약64)	1,000
장동석(문66)	200
전낙관(사60)	75
전원일(의77)	75
정근희(의65)	10,000
정신(대92)	1,000
정재훈(공64)	260
최용완(공57)	100
최종권(문59)	220
최진석(법64)	25
한귀희(미68)	2,000
한홍택(공60)	200
뉴욕	
강에드워드(사60)	200
강창홍(의63)	50

고애자(음57)	50
권영국(상60)	200
금영천(약72)	1,000
김명철(공60)	200
김완주(의54)	75
김은희(간78)	200
김종원(사58)	50
김중권(의63)	200
리준우(음65)	200
문석면(의52)	200
박순영(법56)	75
서량(의63)	75
선중철(의57)	100
신응남(농70)	1,400
이강홍(상60)	200
이재덕(법60)	75
이전구(농60)	500
조남천(사59)	350
조태환(상56)	50
차수만(약71)	300
최학용(농58)	1,500
최혁(음72)	200
한승순(간70)	150
허선행(의58)	200
홍종만(공64)	200
미시간	
김희주(의62)	225
오동환(의65)	200
윤효윤(의56)	200
이성길(의65)	100
이정화(음56)	200
이재승(의55)	75
뉴잉글랜드	
윤상래(수62)	500
박종승(의56)	200
주창준(의50)	200
북가주	
부영무(치72)	200
한상봉(수67)	500
황만익(사59)	200
샌디에고	
이휘영(법59)	75
임춘수(의57)	200
플로리다	
이필순(의54)	200
조경호(의66)	200
하트랜드	
고 차봉희(의51)	500
이상강(의70)	10,000
최은관	500

시카고	
김현주(문61)	100
소진문(치58)	200
이영섭(수56)	75
이용락(공48)	1,000
정의철	250
최희수(문67)	100
한경진(상59)	200
오레곤	
김상순(상67)	200
텍사스	
박영규(사66)	200
이석호(농78)	200
진기주(상60)	500
황명규(공61)	200
필라델피아	
이만택(의52)	200
이승공(의63)	200
정태광(공74)	100
지흥민(수61)	200
손재옥(생77)	200
미네소타	
문성인(공88)	50
워싱턴	
민영기(공65)	75
조지아	
정양수(의60)	25
김용건(문48)	200
워싱턴DC	
강길중(약69)	200
고무환(법57)	200
권철수(의68)	200
김동훈(법56)	200
김응환(치88)	200
남욱현(경84)	1,000
박평일(농69)	400
박홍우(문61)	200
변광록(간72)	200
백순(법58)	200
서윤석(의62)	200
석균범(문61)	200
석보환(사68)	200
오인환(문63)	600
유영준(의70)	175
이건형(수54)	25
이내원(수58)	75
이선구(문65)	275
이연주(치88)	200
정평희(공71)	200
조화유(문61)	75
캐나다 밴쿠버	
장희순(문75)	388

캐롤라이나	
한광수(의57)	500
커네티컷	
김기훈(상56)	200
최창승(의52)	500
광고후원금	
남가주	
강호석(상81)	240
고석자(인72)	600
김경무(공69)	400
김영희(음77)	3,700
김원택(공65)	240
김은중(상59)	600
김자성(의79)	1,500
김정빈(공66)	500
나두섭(의66)	200
나정자(간70)	400
미주동창회(11대)	1,000
미주재단	6,000
민일기(약69)	500
박수경(생84)	2,700
박제환(문75)	500
박찬호(공58)	300
서동영(사60)	240
서치원(공69)	2,500
안혜정(생77)	200
이기준(법54)	500
이범모(치74)	250
이상대(농80)	240
이원택(의65)	2,200
이종모(간69)	240
임준택(상68)	400
정재훈(공64)	240
주영세(사59)	400
차민영(의76)	1,500
최홍준(수81)	400
최호동(공58)	300
홍훈정(음70)	400
뉴욕	
김기택(수81)	240
김승호(공71)	1500
석창호(의66)	240
신응남(농70)	240
이전구(농60)	240
워싱턴DC	
남욱현(경84)	9,300
이내원(사58)	1,000
이태영(법60)	1,800
모교발전기금	
남가주	
박우선(공57)	300
박원준(공53)	700
이범모(치74)	200
홍선일(공71)	100

워싱턴DC	
권철수(의68)	100
최재귀(미63)	300
워싱턴주	
이원섭(농77)	150
필라델피아	
손재옥(생77)	100
샌디에고	
임춘수(의57)	200
장학기금	
남가주	
박원준(공53)	300
한홍택(공60)	50,000
시카고	
이용락(공48)	300
뉴욕	
신응남(농70)	200
이강홍(상60)	500
필라델피아	
손재옥(생77)	100
미시간	
이정화(음66)	175
Brain Network	
시카고	
이용락(공48)	200
조중행(의63)	100
필라델피아	
손재옥(생77)	100
워싱턴 DC	
서휘열(의57)	300
지부분담금	
샌디에고	550
뉴욕	3,000
뉴잉글랜드	1,000
워싱턴DC	2,000
필라델피아	1,000
시카고	2,400
조지아	800
오레곤	300
플로리다	300
오하이오	300
알래스카	200
남가주	3,000
캐롤라이나	200
하와이	300

Charity Fund(나눔)	
남가주	
임낙균(약 64)	3850
필라델피아	
손재옥(생77)	100
우크라이나 기부금	
남가주	
구상선	50
노명호(공 61)	1,000
유의영	100
이정남	200
이호진(간74)	100
서진(간56)	3,000
안혜정(생77)	300
한홍택(공60)	1,000
홍종화(약74)	500
북가주	
이장우(문72)	100
뉴욕	
민준기(공59)	100
조상근(법69)	1,000
조지아	
김용건(문48)	200
유성무(상66)	300
오레곤	
한영준(사60)	100
워싱턴DC	
최재귀(미63)	200
커네티컷	
유시영(공68)	500
워싱턴	
이길송(상57)	100
시카고	
김신웅(생59)	300
재환수(사61)	200
휴스턴	
진기주(상60)	1,000
캐나다 밴쿠버	
장희순(문75)	100
뉴잉글랜드	
윤상래(수62)	200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 _____	<input type="checkbox"/> \$75(2021. 7 ~ 2022. 6) <input type="checkbox"/> \$150(2021. 7 ~ 2023. 6) <input type="checkbox"/> \$3,000(중신이사회비)	<input type="checkbox"/> \$240(2021. 7 ~ 2022. 6) <input type="checkbox"/> \$480(2021. 7 ~ 2022. 6) 일반 광고 문의: snuaausa30@gmail.com	<input type="checkbox"/> Scholarship Fund (장학기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 _____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 _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중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 \_\_\_\_\_,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보낼 곳: SNUAA-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Tel: (213)908-5586 | Email: snuaausa30@gmail.com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서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가 바뀔경우에만 기입 바랍니다.
주소:				

**남가주지역**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공대66)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 그룹**

한태호(인문대 75) www.haanlaw.com

**213-639-2900**

3699 Wilshire Blvd., #860, LA, CA 90010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사대 81)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Law Office Of Kyung Hee Lee**

이경희(인문대 83) imin@iminusa.net

**213-385-4646**

3435 Wilshire Blvd.,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rit Realty**

이종묘(간호대 69) jenniecelee@gmail.com

**714-396-0624**

6301 Beach Blvd., #225, Buena Park, CA 90621

**식품/음식점**

**자연나라**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

정정우(수의대 74)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vello, CA 90640

**북창동 순두부**

이태로(법대 50)

**213-382-6660**

3575 Wilshire Blvd., LA, CA 90010

**병원**

**실로암병원**

정균희(의대 64)

**213-386-8602**

2528 W. Olympic Blvd., #103, LA, CA 90006

**동물병원**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수의대64)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수의 76)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농대 80)

**909-882-3800**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Gilbert Drugs**

최무식(약대 66)

**714-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김경무(공대 69) kyungmookim@yahoo.com

**(213) 616-1390**

114 Washing Blvd., #C, Marina Del Ray, CA 90292

**SHIN-YONG KANG CPA**

강신용(사대 73) 공인회계사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Lee Kang Won CPA**

이강원(인문대 76)

**(213) 387-1234**

3600 Wilshire Blvd., #930, LA, CA 90010

**GSK LLP**

강호석(상대 81) cpa@hosukgangcpa.com

**(213) 380-5060 (LA, CA)**

**(714) 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장 준(인문대 85)

**(818) 772-2811**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상대 68) choontaikim@gmail.com

**(213) 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CPA**

김원철(농대) kimandhwang@cs.com

**213-383-8553**

3435 Wilshire Blvd. #940, LA, CA 90010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www.linkboxusa.com

김원탁(공대 65) linkboxusa@gmail.co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1302

**Turbo Air, Inc.**

서치원(공대 69)

**(310) 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공대 64) jchung@taycoeng.com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부품**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818-720-2373**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뉴욕지역**

**공인회계사**

**KI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상대 64)

1430 Broadway St., 306, New York, NY 10018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www.nycgolfcenter.com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petershinesq@gmail.com

**718-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I #UI-2 Flushing, NY 11358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윤의규(상대 82) edwarded.yun@edwardjones.com

**201-978-7055**

560 Sullivan Ave St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의대 73)

**201-302-9774**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changhsuk@aol.com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의대 72) cleel134597@aol.com

**718-762-4400**

40-5 Browne S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haeahm@aol.com

**212-879-2322**

230 East 73Rd Street St., 1A, New York, NY 10021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의대 75)

**718-229-1188**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박종효 소아과**

박종효(의대 79)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수의대 81)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의대 73)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공대 71)

**718-463-0001**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전미주 서울대 동문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협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6대 노명호 회장&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snuaausa30@gmail.com

since 1999 **듀오** USA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 결혼해 듀오



www.duouusa.net

LA **213-383-2525**  
NY **201-947-2525**

www.yongsusanla.com



개성요리 · 궁중요리 전문점

## 용수산 YONG SU SAN

traditional korean cuisine

Tel : **213. 388. 3042**      Mon thru Sun 11:30am ~ 10pm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정신과 의사 (의대 '65)

## 이원택의 미·한 변형 사전

21세기 미국인이 생활 현장에서 쓰는 영어를 (어원 추적) (파생어별 정렬) (소셜식 풀이)를 통해 [한글 발음] [한글 해석] [대체 한글] 로 표기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처방} 사전이다.



IT 용어, 신조어·콩글리시 등 부록 22편  
총 1236쪽 양장제본, 정가 35불

구매처: LA 반디서점  
(213)739-8107, [bandibookus.com](http://bandibookus.com)



## 제16대 미주동창회

**회장 노명호(공)**

상임고문: 김중섭(문),  
고문: 박종수(수), 주종광(약)

**차기회장 이상강(의)**

명예회장 신응남(농)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옥(가),  
윤상래(수)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위원장: 한홍택(공)  
위원: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정호(공), 이관후(공)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차민영(의), 강성진(문)

**집행부**

사무총장: 강호석(상)  
총무국장: 이호진(간)  
재무국장: 이윤종(미)  
IT 국장: 심재호(공)  
문화 광고국장: 홍선례(음)  
섭외국장: 안혜정(생)  
홍보국장: 김자성(의)

**동창회보**

발행인: 노명호(공)  
편집 고문: 박용필(문), 김정현(공)  
편집위원: 김양희(음), 박승현(음), 이준수(공)  
장민구(공), 한정희(미), 허유선(가)

**논설위원**

정태영(문), 문성길(의), 박평일(농),  
정홍택(상), 김지영(사), 박제환(문), 강신용(사),  
이종호(인), 김학천(치)

**회칙위원회**

위원장: 김병연(공)  
위원: 김용현(상), 김지영(사), 성주경(상),  
이민언(법), 조화연(음), 최경선(농), 최진석(법),  
한재은(의)

**장학위원회**

위원장: 노명호(공)  
위원: 한홍택(공), 황경순(공), 강호석(상),  
남성우(공), 김태환(자), 홍주선(상)

**포상위원회**

위원장: 노명호(공)  
위원: 각 지부 회장  
감사: 김경무(공)  
김영태(미)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213)908-5586	이메일 news@snuuaa.org	웹사이트 www.snuuaa.org
주소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2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ausa30@gmail.com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박제환(문리 75) T: (323)229-3369  
jaycpa2000@gmail.com

차기 회장 김경무(공대68) T: (213)210-1110  
kyungmookim@yahoo.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장희순(문리 75) T: (236)513-0376  
p21.snuaivan@gmail.com  
sphro17@gmail.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617-7585

**미시간 MICHIGAN** (Jan~Dec)

정무형(문 70) T: (213)458-4969  
chung0520@gmail.com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회장 차재호(농공학 84) T: (651)769-5343  
jaechocha@yahoo.com

차기 회장 용정식(농화학 86) T: (610)952-3673  
jyong@umn.edu

**북가주 SAN FRANCISCO** (Jan~Dec)

김철규(공대 60)  
cheolkkim@gmail.com

**오레곤 OR/ID** (Jan~Dec)

박희진(농대 78) T: (503)648-0775  
hjpark@flonomix.com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223-0887  
jaeyoon@hotmail.com

**시카고 IL/IN/WI/MI** (Jan~Dec)

회장 김승주(간호 69) T: (630)341-1943  
seungjoochang@gmail.com

차기 회장 황치룡(문리 65) T: (847)895-2814  
chi.whang@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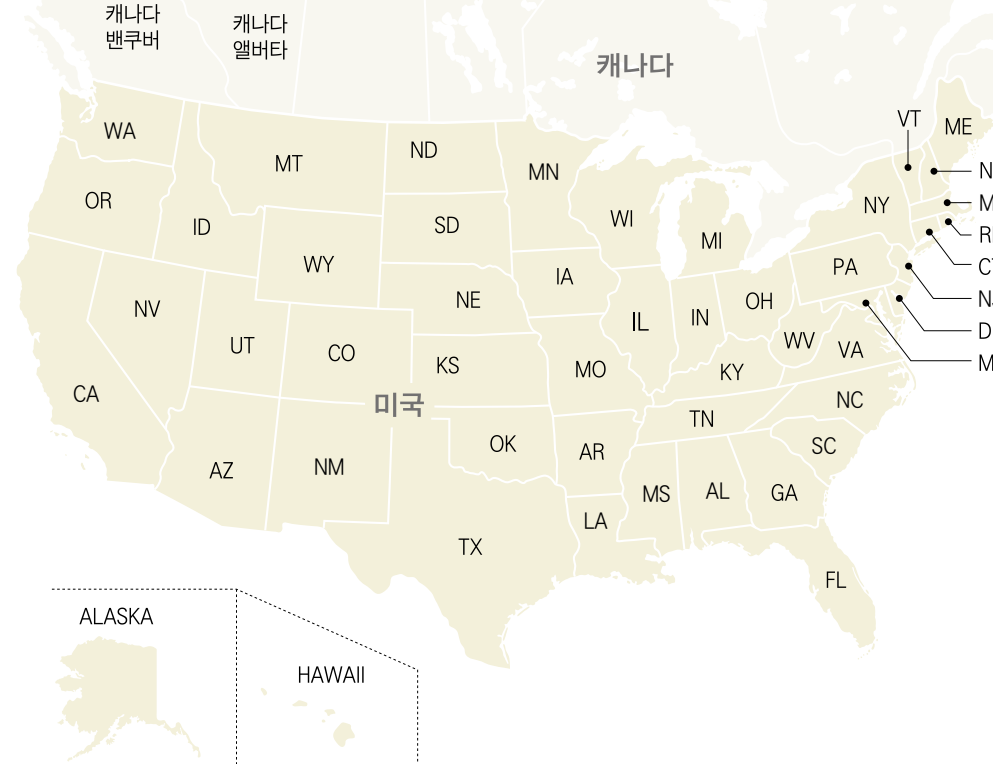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회장 김유경(음대 72) T: (781)223-4411  
YkimLC@yahoo.com

차기 회장 임영호(공대 72) 978-490-0118  
Ynghlim@yahoo.com

**샌디에고 SAN DIEGO** (Nov~Oct)

유재호(공대 90) T: (469)387-7922  
blue9071@gmail.com



**뉴욕 NY/NJ** (July~Jun)

회장 금영천(약대 72) T: (718)791-4397  
yckum52@gmail.com

차기 회장 김정필(공대 71) T: (201)965-7759  
jaypkim@keiusa.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회장 이명자(간호 74) T: (206)218-8887  
drmiale@gmail.com

차기 회장 하혜숙(간호 77) T: (425)240-5633  
annaparkha@gmail.com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회장 박상근(법대 75) T: (703)447-8175  
sangkuenpark@gmail.com

차기 회장 정세근(자연대 82) T: (703)785-8467  
saekewn@gmail.com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hotmail.com

**커네티컷 CT**

박용회(상대 83) T: (203)767-8187  
yhptax@g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회장 성낙길(문리 77) T: (808)956-2611  
nsung@hawaii.edu

차기 회장 전수진 T: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회장 이성숙(가정 74) T: (610)417-4789  
ssh1120@gmail.com

차기 회장 이종태(사대 71) T: (267)266-2881  
leejt1530@gmail.com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김순기(치대 82)  
EricSophia@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 82) T: (602)510-9196  
snuarizona@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조지아 GA/AL/MS** (Jan~Dec)

배혜영(음대 79) T: (678)943-9043  
lhybae@gmail.com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jung@duke.edu

**중부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487-4390  
Hakho3830@gmail.com

**휴스턴 HOUSTON** (Jan~Dec)

구자동(상대 70) T: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하틀랜드 IA/MO/KS/NE/AR/OK** (Jan~Dec)

이치현(약대 77) T: (913)814-9452  
leech@umkc.edu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최희덕(사대 68) T: (973)610-5857  
heeduklee@gmail.com

**테네시 TENNESSEE** (Jan~Dec)

김상호(공대 86) T: (856)386-1094  
kimsh@ornl.gov

차민영(의대76)

# 멋진 인생 시니어! 제2의 인생 항해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 준비하십시오!



아름다운 바다  
아름다운 뷰  
아름다운 시니어

건강하고 멋진 시니어 인생은  
저 이순재와 함께  
아름다운 항해로 시작하십시오.  
서울 메디칼 그룹이  
시니어 분들의 인생 항해에  
함께 하겠습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TEL 213.389.0077 • 800.611.9862



시니어 배우 이순재

**Fairway Asset Corporation** *You Can Trust*

남욱현(경영대 84)

“ 웃음 가득한 편안한 가정,  
**Fairway Asset Corporation** 이 함께합니다.”

가정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모기지 페이먼트,  
단순한 용자 서비스를 넘어서, 건전한 가정경제를 먼저 생각합니다.



**Fairway Asset Corporation** 은 워싱턴 지역 Lender 로서  
고객의 편의, 최저의 이자율, On Time Closing Service 를 위해  
License 를 갖춘 용자 전문가들이 고객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이익의 사회환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www.facloan.com](http://www.facloan.com) NMLS#293044([www.nmlsconsumeraccess.org](http://www.nmlsconsumeraccess.org))

• VA License No. MC5452 • MD License No. 183469 • DC License No. MLB293044 • DE License No. 019327 • NC License No. L-169942 • GA License No. 60069  
• PA License No. ML48710 • NJ License No. 293044 • CA License No. 603J584 • IN License No. 27916 • CO License No. 293440 • AL License No. 22538  
• IL License No. MB 6761371 • FL License No. MLD1737 • TN License No. 176973 • TX License No. 293044

Maryland Office

**301-279-6969**

15400 Calhoun Dr. #120, Rockville MD 20855

Fairfax Office **703-204-0022**

Annandale Office **703-256-6002**

Centreville 지역 **703-371-8343**

Ellicott City 지역 **301-279-8662**

Silver Spring 지역 **301-456-9962**

DE & PA 지역 **267-275-9439**

NJ 지역 **201-888-7456**

NC 지역 **917-418-3587**

Richmond 지역 **703-309-5755**

GA(Atlanta) 지역 **404-578-1426**